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2월 14일(음력 12월 27일) 수요일 (주간) 제 615 호

“천하 향해 오도송을 토해 내리라”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동안거 대중 한달 장좌불와 이어 가행정진 ‘열기’


학림사 오등선원에서 납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하고 있다. 사진= 박재완 기자

“이 자리에 앉아 깨닫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다짐한 것처럼 안거든 납자들도 좌복위에 앉는 순간 생사를 초월하는 화두 투과를 다짐한다.

공주 계룡산 장군봉 제석골에 자리잡은 학림사(鶴林寺) 오등선원(五燈禪院). 숲에 깃든 새들처럼 깨달음을 향한 일념으로 대원 스님(학림사 조실)의 회상에 좌복을 편 납자는 열 네명.

동안거에 들며 첫 한달을 24시간 눕지 않고 참선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 용맹정진을 했다. 안거 막바지인 요즘은 하루 18시간씩 참선수행을 하는 가행정진(加行精進)을 하고 있다. 저마다의 화두는 계룡산 골짜기 소나무 보다 성성하다.

개원한지 20여년. 공간이 넓지 않아 다소 불편한 오등선원이지만 안거철마다 일대사를 해결하고자 모이는 납자들의 방부는 끝이 없다.

대원 스님이 백척간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수행에 출재가의 구분이 있겠는가. 선원의 윗 층(상선)은 스님들이 아래층(하선)은 재가선객들이 화두를 타파하기 위한 정진에 여념이 없다. 대원 스님 역시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배고프고 추운 데서 도 닦을 마음이 우러난다)”이라며 눈꼽만큼의 인정도 용납하지 않는다.

올 동안거는 서른 명이 방부를 드렸지만 절반이 ‘중도 탈락’하고, 현재 남은 납자가 열 네명인 것 만 봐도 오등선원의 정진이 얼마나 혹독한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오등선원의 선방을 엿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 그러나 2월 6일 이례적으로 아주 잠깐 문을 열어 주었다. 사람이 죽어도 그대로 두었다가 해제가 되어서야 다비식을 거행할 만큼 엄한 것이 선방(禪房)의 규율이니 잠깐의 취재는 ‘가피’였다.

낮 12시 40분. 점심공양을 마치고 수행중 근육의 경련을 막기 위해 뒷산으로 포행을 떠났던 납자들이 선방으로 모여든다. 덕지덕지 기워진 승복을 입은 스님들의 모습 그 자체로 선기가 느껴진다. 스님들의 눈은 광채로 빛나 마주 볼 수가 없다. 납자들은 보시함, 바느질함, 욕주함, 다리미함, 상비약함, 서시함이 있는 대중방에서 요가를 하며 잠시 몸을 풀더니, 둘러앉아 간단한 대중공사를 했다. 그런 다음 선방으로 들어갔다. 포행도 운동도 대중공사도 다 수행이었다. 물 흐르듯 조용히 바깥경계를 다스리는 찰나찰나가 수행이었다. 선방 풍경이 눈에 들어 왔다. 가운데 작은 부처님상이 모셔져 있고, 한쪽 벽면에는 용상방(龍象榜)이 붙어 있다. 수행자를 물에서 으뜸인 용과 뭍에서 으뜸인 코끼리에 비유해 납자들의 소임과 법명을 적은 것이 용상방이다. 그 밑에는 가사가 줄지어 벽에 걸려 있다.

납자들이 좌복을 펴고 자세를 잡자 입승 스님의 죽비소리가 ‘딱 딱 딱’ 방안을 채운다. 정적이 감돈다. 오직 바람소리와 수각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뿐이다.

납자들은 천길 벼랑 끝에서 발을 내딛는 구도심으로 ‘한 소식’을 얻기 위해 또 그렇게 ‘새벽 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행정진의 일과는 단순하다. 아침 6시 공양을 한 뒤 8시에 선방에 들어가 11시에 나온다. 점심공양을 한 뒤 오후 1시에 들어가 5시에 나온다. 또 저녁 공양 후 저녁 7시에 들어가 새날 아침 6시에 나온다. 더도 덜도 없다. 오직 화두만 있을뿐이다.

납자들을 경책하는 대원 스님의 가르침은 발심의 묘약이다. 스님은 납자들이 한철 농사를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시로 공부를 점검한다. 매일 새벽 3시면 법상에 올라 줄탁동시(拙啄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날 때에 어미닭이 알을 쪼아 돕는 것)의 소참법문도 빼놓지 않는다. 한달간의 장좌불와로 시작한 오등선원의 동안거. 정월 보름날이 오면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눈을 마주쳤던 ‘새벽 별’에 눈맞춘 납자들이 세상을 향해 오도송을 토해 내길 기대한다.

공주= 김원우 기자

종정 추대 원로회의 3월 14일

3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계종 종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종정추대권을 갖고 있는 원로회의가 추대를 위한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3월 14일 회의를 열어 제12대 종정 추대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조계종 종헌에는 종정 임기 만료 3개월전까지 종정을 추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동안거 기간중 원로의원 스님들의 산문밖 행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종정 추대를 미뤄왔다.

현 종정 법전 스님은 2002년 법좌에 올랐으며, 다음달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박봉영 기자

봉축위원회 봉축표어 공모

봉축위원회가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뜻과 의미를 가장 친근하고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불기 2551년 봉축표어를 공모한다.

봉축표어는 △고통 받는 중생을 참다운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부처님 오신 참뜻을 알리는 내용 △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들을 드러나게 하거나 포교와 관련한 내용 △동체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천하는 내용으로, 글자수 10자 이내로 만들면 된다.

1인 최대 2개씩 응모할 수 있으며,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봉축위원회(02-2011-1745)로 이메일(nhk@buddhism.or.kr)이나 팩스(02-725-6643)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 상금은 30만원.

2006년 봉축표어는 ‘어린이마음 부처님마음’이었으며, 2005년에는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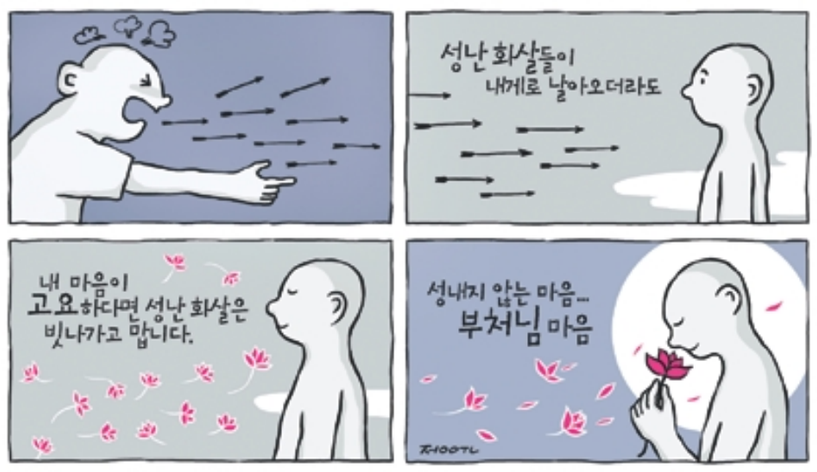
남동우 기자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I love Buddha / 성내지않는 마음 부처님

용정운(www.zentoon.com)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인물經세상鏡

나유타, 최봉종씨의 ‘희망 숫자’

“17세 철없는 나이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던 날, 나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야말로 철없는 나이에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영어의 몸이 된 청년. 수감 생활 중 어머니가 강도를 당해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갈을 받으며 용광로 같이 들끓던 세상을 향한 분노와 비관….

최봉종(38)씨는 그 분노와 비관을 극복했다. 교도소에서 찬불가를 듣고 온 영혼을 찬불가에 바친 것이 묘약이었다. 그저 찬불가를 듣고 부르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찬불가 합창단을 만들었고 작곡하는 법도 배웠다. 그는 2001년 창작찬불가공모전에서 직접 짓고 부른 ‘나유타’라는 노래로 대상을 받았다.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 됐고 16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요즘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섯 곳 사찰의 불교합창단을 이끌고 있고 복지관에서 공연을 하기도 한다. 날씨가 좋을 땐 거리공연을 하며 자신의 신작곡을 홍보하고 찬불가도 부른다.

그러나 그에겐 여전히 불편한 게 많은 생활이다. 일정한 거처가 없어 인연 닿는 대로 사찰을 옮겨 다니며 몇 주일 혹은 몇 달씩 잠자리를 해결해야 한다. 50여 편의 찬불가를 만들었지만 음반을 낼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결혼은 더욱 생각 못할 ‘딴 세상’의 이야기다.

‘나유타’는 무한대 이상으로 큰 숫자의 개념이다. 최봉종씨는 나유타라는 숫자를 절망과 분노의 숫자에서 희망의 숫자로 탈바꿈 시켰다. 그가 운영하는 카페(cafe.daum.net/nayuta2001)에는 그의 새로운 삶과 찬불가에 대한 열정이 봄꽃처럼 피어있다. 나유타의 희망, 누구나 마음을 열면 아름다운 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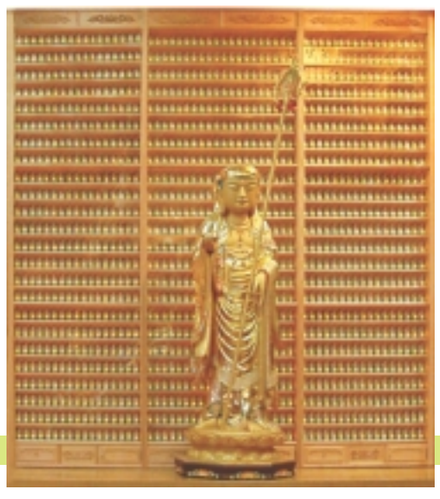
임연태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 상 품
영구위패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interview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창종정신 자주적 계승"

7일 신년기자 간담회…신행문화개선 · 해외교류 등 종단발전 비전 제시

"진각문화 전승원을 10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는 2월 7일 총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회정 정사는 "총 120억 예산을 들여 건평 5000평 규모의 진각문화 전승원 건립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4월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뒤 공청회를 거쳐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회정 정사는 또 "포교 교육 복지 문화창달등 진각종의 4대 종책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화합을 큰 주제로 모든 분들에게 문을 열고, 진각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교역자의 질을 업그레이드함은 물론 나눔과 회향의 복지서비스 실현, 남북교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의 종책 목표를 설명해 주십시요.

– '창종정신의 재발견과 자주적 계승'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각종조인 회당 대종사의 사상과 진각종 창종의 시대적 의미를 참회 및 실천을 강조하는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수행과 포교라는 종단의 이원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신행문화의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즐거운 신행, 하나 되는 신행, 함께하는 신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진각종의 비전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포교를 중심으로 한 신행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경주시 산내면에 마련한 30만평의 부지를 교육도량화 해 걷기명상과 위빠사나 수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문화포교에 특히 역점을 두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문적인 문화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안에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일단 종단 내 단체인 진각문학, 진각플라워, 차문화회 등을 주축으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진각종도들을 총규합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종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불교교류와 해외포교 확대에도 많은 활동이 예상됩니다만.

–올해는 북한 만경대 건너 두루섬 협동농장에 약 1000평 규모의 온실을 시범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해외 쪽으로는 스리랑카와 네팔에 JGO 현지 법인화를 통한 시설증축에 들어갑니다. 해외 심인당을 지원해 교포 2, 3세들의 한국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덕대 군종법사 파견에 대한 진각종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조계종과 별개로 군법사 파견을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조계종에서 대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면 종단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원하는 지도자상은.

–정파를 떠나 화합할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지도자가 됐으면 합니다. 불자들도 정견을 가지고 주권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가동

진각종 봉행위 구성…사업 · 행정 · 성역화 분과 등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사업회(봉행위원장 회정, 이하 기념사업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기념사업회 봉행위원장 회정 정사는 2월 1일 집행위원장에 총무부장 회성, 자문위원장에 교육원장 경정 정사 등 총 14명의 추진위원들에게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2창종의 신념을 갖고 기념사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념사업회는 이와 더불어 실무추진기구로 기념사업분과위원회(위원장 호당), 행정분과위원회(위원장 지정), 성역화사업분과위원회(위원장 무외) 등 총 3개 분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분과는 각종 기념사업 및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고 행정분과는 기획, 회의 및 재정과 운영을 담당한다. 성역화사업분과는 실버타운을 비롯한 (가칭)진각문화전승관 컨텐츠기획 및 개발과 조성 등을 맡는다.

한편 자문위원에는 종의회의장 혜인, 사감원장 겸 부산교구청장 혜명, 前 통리원장 효암, 서울교구청장 수성, 대구교구청장 관천, 대전교구청장 휴명, 경주교구청장 상제, 포항교구청장 무외, 전라교구청장 직무대행 도진 정사 등을 위촉했다.

추진위원은 경당(교육부장), 경일(진각대 사무처장), 정효(총무국장), 원암(기획국장), 법경(포교국장), 원주(건설국장), 덕운(전산국장), 법정(지원심인당 주교), 덕정(법륜심인당 주교), 일학(선혜심인당주교) 정사 등이다.

김원우 기자

불교지도자 사명과 역할 모색

조계종 교육원, 승랍 연차별 연수일정 발표

조계종 교육원이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지도자의 사명과 역할을 모색하는 불교 지도자 연수일정을 발표했다.

승랍 10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열리는 '제2회 불교 지도자 연수'는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승랍 20년차를 대상으로 열리는 '제6회 불교 지도자 연수'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승랍 25년차를 대상으로 열리는 '제6회 불교 지도자 연수'는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한국증권연수원에서 각각 열린다.

연수 주요내용은 △불교지도자론 △불교지도자 적성검사 △리더십(개론)/맥스웰 리더십 △지역지도자로서의 역할 △종교인구 변화분석 등이다.

10년차 이상 연수 신청자는 3월 16일까지, 20년차는 23일까지, 25년차는 2일까지 조계종 교육원 연수팀(02-2011-1807)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각 40명. 입교비는 25만원.

연수를 이수한 스님 중 주지스님은 올해 본 · 말사 주지연수를 대체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제2회 불교지도자 연수를 이수한 스님은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중 교육원에서 실시한 40시간 이상의 직능교육을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남동우 기자

수덕사 주지 후보에 옹산 스님 선출



예산 수덕사 차기 주지 후보에 옹산 스님(예산 향천사 주지 · 사진)이 추대됐다.

수덕사는 2월 3일 임회를 열고 오는 3월 18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현 주지 법정 스님 후임에 옹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옹산 스님은 총림법에 따라 덕숭총림 방장 원담 스님 추천으로 4년 동안 주지소임을 맡게 된다.

옹산 스님은 취임 수락사를 통해 "방장스님의 뜻을 잘 받들고 선지종찰 수덕사의 수행가풍을 계승하며 미래 한국불교 동량을 양성하는데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옹산 스님은 1966년 원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71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75년 망월사 수선안거 이래 30하안거를 성만했으며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충남경찰청 경승지단장 등을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불학연구소 조직 · 내실 확대

요경 스님 · 서재영 · 조명제 박사 등 영입…각종 편찬사업 활기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몸을 바꾸고 있다. 덩치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도 풍성해지고 있다. 조계종 종지종풍에 맞는 이념과 교육, 수행을 전파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불학연구소는 최근 기존 김광식 · 서수정 상임연구원 외 서재영 선임연구원과 요경 스님, 조명제 박사를 상임연구원을 채용했다.

동국대에서 '선(禪)의 생태철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재영 연구원은 불학연구소 연구실무와 기획총괄업무를 맡는다. 특히 조계종이 중점 추진해왔던 간화선 수행법 대중화 및 사회화와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한국전통사상서> 번역 출판사업의 주요 연구를 담당할 계획이다.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요경 스님은 불학연구소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통일 한문 · 한글본 편찬을 담당할 예정이다.



요경 스님



서재영 선임연구원



조명제 상임연구원

조명제 박사는 한국선종사와 동아시아불교사가 전공이다. 조 박사는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조계종 선원 청규 편찬 사업을 담당한다.

불학연구소 예산도 증가했다. 지난해 2억6460여만원에서 올해 3억5354여만원으로 25%인 8894만정도 상승했다.

불학연구소는 증가된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며, <간화선> 영역과 개정판 발간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행종풍 진작 일환으로 진행해온 수행법 입문서 발간에 이어 <간경>과 <주력> 입문서도 발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맞아 종단 정체성을 조명하는 '종단사 세미나'를 열고, <도서> <선요> 완성판, <치문> 시험판을 발간할 계획이다.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명연 스님은 "종단이 안정되고 수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연구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같다"며 "종단의 중심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어린이법회 지원사업 실시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 법회 개설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선정된 사찰에는 개설지원팀 협조, 포교관련 자료, 어린이 지도자 연계 및 여름 · 겨울 불교학교 지원 혜택이 우선 제공된다.

조계종 등록 사찰로서 어린이 20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매주 1회 어린이 법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찰이며, 어린이 법회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1인을 확보한 사찰은 지원 가능하다. (02)2011-1904

남동우 기자

통도사 산중총회 3월 6일

영축총림 방장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3월 6일 오후 2시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2월 12일부터 14일까지이며, 3월 1일부터 3일까지 통도사 종무소에서 구성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고창 선운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3월 5일 오후 1시 선운사 종무소에서 열린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은 26일부터 28일까지.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 대한불교삼론종 제3세 종정 대정당 이혜공대종사님의 추대를 축하합니다 축

모시는 글

삼보에 귀의 합니다.
대한불교삼론종 대정당 이혜공 대종사 3세 종정
추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불기 2551년(서기2007년)2월 12일 월요일
■ 장 소:충북 충주시 호암동 540-10 후랜드리호텔 크리스탈홀 (043)848-9900
■ 문 의:삼론종 총무원 / 전화:(02)937-0343

◆종 정 대정 석혜공
종정사서실장 석지영
◆부종정 각몽 석혜승
◆승정 석추봉 대안(大安) 승 정 석혜광 혜광(慧光)
◆총무원장 석진봉 진봉(眞峰) 부 원 장 석해불 해불(海佛)
총무부장 석혜원 혜원(慧元) 교무부장 석지향 지향(志香)
규정부장 석지법 법산(法山) 사회부장 석석진 성희(性希)
재무부장 석도희 도희(道希)
◆종회의장 석지경 지경(志敬) 부 의 장 석해불 해불(海佛)
◆사정원장 석지운 지운(志雲) 부 의 장 석도우 도우(道友)
◆포교원장 석인봉 인봉(仁捧) 부 의 장 석보원 보원(補元)
◆교육원장 석도경 도경(道鏡) 부 의 장 석명재 명재(明宰)
◆수선원장 석지심 지심(志心) 부 의 장 석성심 성심(聖心)
◆문화원장 석성봉 성봉(承峰) 부 의 장 석지학 지학(志學)

대한불교삼론종 종정추대 위원회 일동

안상수 인천시장도 '성시화' 찬양 발언

조계종 종평위 공식해명 · 재발방지 약속 요청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인천지역 개신교 행사에 참석해 성시화운동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1월 26일 인천 간석동 성산효도대학원에서 열린 성시화운동법인 설립 감사예배에 참석해 "인천은 전 세계에 파송한 1만 6000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을 돕는 세계적인 선교도시로 세계복음화의 관문이 될 것"이라며 "성시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천에 성시화운동 본부가 설립된 것을 270만 인천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국내 일간지와 기독교계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인천시 홈페이지에는 안 시장 발언을 비난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이형구씨(인천시민)는 "인천시 인구 260만중 약 78만의 기독교인을 제외한 182만 비기독인은 거룩한 인천시 성시화 작업을 위해 인천을 떠나란 말이냐"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월 5일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안 시장의 종교편향 행위와 발언은 국민화합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교적 대립구도를 조장하고 있다"며 "2월 14일까지 공식적인 입장해명과 함께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의지표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일 기자**



현등사 '돌아온 진신사리' 친견법회

2년 여 동안의 법적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삼성문화재단에서 제자리인 가평 현등사로 돌아온 현등사 삼층석탑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게 됐다. 현등사(주지 초격)는 입춘인 2월 4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2월 8일 불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있는 모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한암 스님 수행 배우자"

월정사 제3회 수행학림

근세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종정이었던 한암 스님(1876~1951).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창 월정사를 비롯해 상원사, 중대 사자암 등지에서 제3회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을 개최한다.

재가불자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행학림은 '나를 닦는 108배' '참법 및 포살' '삼보일배' '좌선법 강의 및 지도' '철야정진' '한암 대종사 탄신재' '한암 대종사 선사상 국제학술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동참금 10만 원. (033)332-6664~5 **남동우 기자**

25일 어린이지도사 고시

조계종 홈피 응시원서 배포

제1회 불교어린이지도사 고시가 2월 25일 오후 2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사찰을 재적사찰로 정하고 신도오계 수지 및 신도등록을 필한 사람 중 △종단으로부터 특수교육기관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의 졸업자 △유치원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거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은 응시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통해 배포되며, 자기소개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등을 첨부해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팀(02-2011-1904)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한글도메인 등록 주의하세요"

한글 도메인 등록과 관련해 사찰 및 불교계 단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전산기록팀은 "모 업체에 등록된 한글 도메인이 소용없게 됐으니, 모든 인터넷 제공업체를 통합해서 서비스하는 자신의 업체에 등록하라"는 내용의 전화가 종단 소속 사찰 및 단체에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2월 7일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에서 확인한 것에 따르면 △등록된 한글 도메인이 소용없게 됐다는 업체는 한글 키워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의 업체에 등록하라고 하는 곳은 아직 어떠한 서비스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남동우 기자**

"줄기세포 역분화 기술로 난치병 극복"

동국대 · (주)임젠, 줄기세포은행 설립 · 공동연구 등 협약

동국대(총장 홍기삼)는 2월 7일 (주)임젠(대표 김기동)과 줄기세포은행 설립 및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연구에 관한 협약(MOA)을 체결했다. 지난 해 10월 25일 동국대와 (주)임젠은 줄기세포은행 설립 추진 및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이미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 내용은 (주)임젠이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 역분화 기술을 이용해 줄기세포은행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시설과 장비를 동국대 일산병원에 설치하고, 7월 중 정식으로 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해 동국대, 동국대병원, (주)임젠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주)임젠은 역분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약개발, 불멸화 세포주를 이용한 신세대 기능성 화장품 원료 생산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또한 2년전 난자나 탯줄혈액 · 골수없이 환자 체세포를 곧바로 줄기세포로 만드는 역분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다. 임젠은 역분화 유도 줄기세포 관련 국내외 특허를 이미 8건 출원했으며, 현재 새로운 6건이 출원중에 있다.



동국대 홍기삼 총장(오른쪽)과 임젠의 김기동 대표가 협약 체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연구는 임젠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포함)의 우수한 임상진간의 이상적인 산학협력 모델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동국대는 향후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 연구 및 치료센터, 동국대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한 일산 지역의 메디클러스터 구축, 동북아시아지역 줄기세포 허브로의 도약 등의 야심찬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

동국대는 "그동안 대학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ABC+α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줄기세포은행 설립 추진에 관한 사업은 이 중 생명공학분야 특성화인 'B(Bio) 전략'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국대는 "이러한 역분화 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연구는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니라, 인류의 난치성 질병극복에도 큰 공헌을 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사고

예비수험생·학부모님
'자비명상'으로 만점 도전!

본사는 예비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빚어질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를 드리고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 스님 자비명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강좌는 부처님께서 장자 아들에게 설하신 〈육방예경〉에 근거한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1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가 스님은 공주 마곡사에서 포교국장으로 재직하며 4년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 마곡사를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2003년부터 중앙대 겸임교수로서 '내 마음 바로 보기'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사 : 마가 스님
- 장소 : 대치3동 대치3문화센터
- 참가인원 : 100쌍(200명)
- 시간 : 매 회 오후 3시~5시(2시간)
- 연락처 : (02)2004-8279, 011-737-2658
- 참가비: 1인 2만원

회차	날짜	장소
1차	2월 10일	대치3문화센터
2차	2월 11일	대치3문화센터
3차	2월 24일	대치3문화센터
4차	2월 25일	대치3문화센터



포교사대학원 신입생 · 케어복지사 모집

조계종 포교원 부설 포교사대학원(학장 혜종 · 조계종 포교원장)은 포교현장에 필요한 전문분야 포교사 양성을 위해 5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신행문화학과와 불교사회복지학과로, 각각 주간반과 통신반 약간명을 모집한다.

포교사단 단원으로서 자격품수 후 3년 이상 포교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한 사람은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형은 서류와 면접으로 나눠 진행되며, 면접은 2월 24일 오전 10시 포교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합격자 발표는 3월 2일.

졸업자격취득자에게는 종단 전문포교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포교사대학원은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복지현장에 필요한 케어복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3기 케어복지사 수강생을 모집한다. 케어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번 강좌는 3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포교사대학원 교육관에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사회복지개론 △기본간호 △상담기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케어복지론 등이며,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2급 케어복지사 자격증과 케어복지사교육과정 이수수료증, 노인 및 케어관련 기관과 시설 취업 알선 및 자원봉사 연결 혜택이 주어진다. (02)927-0589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11주 2월 8일 - 2월 14일 [162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2월 8일[목]	김 제	-	대 야	23km
2월 9일[금]	대 야	-	서 천	23km
2월10일[토]	서 천	-	웅 천	27km
2월11일[일]	서웅천	-	보령대천	18km
2월12일[월]	보령대천	-	광 천	22km
2월13일[화]	광 천	-	갈 산	23km
2월14일[수]	갈 산	-	서산시	26km

제12주 2월 15일 - 2월 21일 [717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2월15일[목]	서 산	-	당진읍	25km
2월16일[금]	당 진	-	삽교호	18km
2월17일[토]	삽 교	고성 화진포	금강산	300km
2월18일[일]	금강산 관광			30km
2월19일[월]	금강산	고 성	삽 교	300km
2월20일[화]	삽 교	-	안 중	24km
2월21일[수]	안 중	-	발 안	20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

외국인 비구니 승가대 첫 졸업

加 출신 자은 스님 청암사 승가대서

영문 홈피 개설 등 한국불교 알리기 공로로 상 수여



2월 2일 열린 김천 청암사승가대학 졸업식 모습.



부처님의 혜명을 잇는 수행자의 길에 졸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2월 2일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 승가대학(학장 지형)의 졸업식은 학인에게는 물론 청암사승가대학에도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지난해 10월 청암사 불사를 회향하면서 열악한 환경 탓에 졸업식을 하지 못했던 1기부터 20기까지의 졸업식을 합동으로 봉행한 후 올해 처음으로 기수별 졸업식을 가지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졸업식은 청암사승가대학 21기 졸업생 33명이 단독으로 갖는 최초의 졸업식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특별함이 더해졌다. 외국인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승가대학을 졸업하는 캐나다 출신의 자은 스님이 졸업생 중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국인 수행자들이 선방이나 각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정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승가대학을 졸업하는 비구니 스님은 자은 스님이 처음이다. 자은 스님은 이날 재학기간 중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 한국불교와 청암사승가대학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로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청암사 교육관 자양전에서 열린 졸업식은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주지 상덕 스님, 학장 지형 스님, 증산면 이도화 면장을 비롯해 졸업생 학인의 은사 스님, 신도 등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학장 지형 스님은 훈화를 통해 "졸업은 새로운 수행의 시작이며 학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수행의 현장에서 본분을 잃지 않고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행하는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을 가진 학인들은 "처음 청암사에 입방해 힘든 점도 없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치열하게 경책하며 밤을 지새워왔다"며 "청암에서 더 정진하지 못하지만 어디에 가서든 청암인의 자긍심과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청암사승가대학에는 현재 120명의 학인이 정진 중이다.

interview 자은 스님

"번역 사업 · 해외 포교활동 하고 싶어요"

"외국인이라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은 국적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겪는 일일 겁니다."

외국인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승가대학을 졸업하는 캐나다 출신 자은 스님(사진)은 졸업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언어, 문화적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대중생활을 통해 나의 잘못을 잘 볼 수 있었고, 수행자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받은 스님은 세계적으로 수행 잘하기로 유명한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온 뒤 99년 마곡사 은적암의 성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2000년 사미니계를 받았으며 이번에 청암사승가대학을 졸업하게 됐다.

"앞으로 선방에서 보다 깊은 수행을 해보고 싶다"는 자은 스님은 "기회가 주어지면 종단의 번역 사업을 돕고 싶고, 캐나다에 불교를 알리는 포교활동도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객원기자

실상사 창건시 가람배치 확인

국립부여문화재연 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1999~2005년 전북 남원 산내면 실상사 경내 30개 건물지를 발굴조사한 성과를 최종 정리한 <실상사 Ⅱ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건 당시 금당지는 중문지와 일직선상에 배치됐으며 강당지와 연결되는 동쪽 익랑지는 중심선상에서 동쪽으로 20m 치우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쪽 익랑지는 발굴되지 않아, 창건 당시 강당지 서쪽 구릉을 그대로 살리면서 가람을 구성한 배치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연구소는 밝히고 있다. 여수령 기자

강원도 문화재 지킴이 발족

강원도 문화재 보호 지킴이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월 3일 원주 구룡사 심검당에서 발대식과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문화재 보호가 우려된다"며 "문화재 보호 지킴이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민연대 고문은 오현(신흥사 회주) · 정념(월정사 주지) · 백운(석왕사 주지) · 월도(삼운사 주지) 스님이, 공동상임대표는 원건상 · 임창규 · 임중호 · 김미자씨가 맡았다. 남동우 기자

이슈

'개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조계종 '종무원법'이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의 거부권 행사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7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개정된 종무원법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스님도 최소한의 경과기간없이 종단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게 했으며, 파렴치한 범죄행위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거름장치 마저 제거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장적 스님(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개악' 종무원법 법적 효력 없다"

총무원장 · 중앙종회의장 미공포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개정된 종무원법에 대한 실효성과 효용성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중앙종회의장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미공포로 의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헌 제43조에 따르면, 중앙종회에서 의결된 종법안은 총무원으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총무원장이 공포해야 한다. 총무원장이 그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중앙종회의장이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모두 이 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셈이다. 장적 스님은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에서 종무원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5차 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나눠먹기식'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조계종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대해 선원, 강원, 율원 등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선원, 강원, 율원 등 10개 분야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20명(해당 분야 당 2명씩)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직능대표 선출위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헌종법개정특위(위원장 장적) 제4차 회의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전국선원수좌회는 "수좌(선원) 대표 중앙종회의원은 전국 수좌 2000명을 대표해야 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 최

"수좌 대표 중앙종회의원은 최소 5명"

"강원 대표는 승가대학 10년 이상 재직"

소 5명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선방 15안거 이상 성만하고 최근 3년 이상 정진중인 자로서, 전국선원수좌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국강원교직자회는 "직능대표(강원) 자격은 교육법 제67조에 의한 승가대학(강원)에서 10년 이상 교역직(교수 이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전국강원교직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축율원은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직능분야별로 1인씩 선출한 10인과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으로 구성"하고 "율원 · 선원 · 강원 등 각 교육기관을 대표할 만한 기구, 즉 교육기관 대표단체의 추천(복수추천)을 통해서 입후보하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문화재 수리 · 매장문화재 보호 법 재정

문화재청 2007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문화재수리법과 매장문화재보호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의 세계유산 등재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불교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 및 과학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문화재수리법' 제정과,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할 '매장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재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문화재안전과를 신설하고 시스템과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고, 객관적 발굴조사기준도 마련한다. 금년 6월에는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과 '조선왕조의궤'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아 · 태 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운영도 본격화된다.

한편 경주와 부여 등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 사업으로 대형 발굴 복원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 제도에는 민속문화재분과와 경관심의분과를 신설하고, 무형문화재분과를 공예와 예능으로 나누어 심의하게 된다. 여수령 기자

"자비로운 설 맞으세요"

불교계 복지관들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 다채

2월 18일 정해년 설날을 맞아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이웃과 함께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원장 지완)는 14일부터 3일간 센터 서예동아리 회원들이 무료 지방 써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집에서 직접 차례를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 공동차례를 지낸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2월 14일 지역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쌀을 전달하고, 연꽃마을 마포노인주간보호센터는 센터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2월 15~16일 설맞이 민속잔치를 연다. 서울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12일부터 16일까지 '사랑의 설날 보내기-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설날' 행사를 연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15일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400여 세대를 초청해 '설맞이 사랑 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

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14일에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초청하고 15일에는 장애우를 초청해 민속놀이 마당과 다과회를 마련한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랑의 쌀 나누기'를 통해 모은 쌀을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고, 송산노인복지회관도 15일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에게 후원물품 및 음식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다. 여수령 기자

〈제7기〉 창조적 리더십의 불교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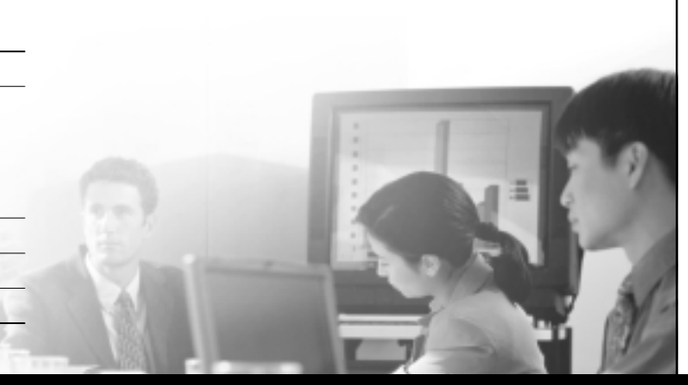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Buddhist Executive Management Course

"사원과 종단, 사업과 언론 · 정치 · 법조계 등, 각계 지도자 여러분, 창의적 정신과 도전적 리더십으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리더로 거듭나십시오."

모집안내

모집인원	• 40명 내외
지원자격	• 각 불교종단의 지도자급 이상 스님 • 불교신도로서(공 · 사기업체 회장 · 사장 임원, 국회의원, 정부 각 기관 고위 공무원, 각 군의 장성,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 2007년 2월 1일 ~ 2월 말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18 : 00 ~ 21 : 30



〈제3기〉 아름다운 프로!

장례비즈니스 아카데미

FBA (Funeral Business Academy)

"장례비즈니스의 전문성이 더욱 절실한 시대, 죽음 관련학과가 세계 주요대학의 인기학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분야에서 아름다운 프로의 날개를 다십시오!"

교육과정

▶ 교육기간 : 1년
▶ 수업시간 : 매주 월 · 화요일 18 : 30 ~ 21 : 20
▶ 교과과정 : 이론 및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문 분야의 특강과 다양한 실습, 견학, 연수 프로그램 포함)

입학안내

▶ 모집인원 : 25명 내외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7년 2월 말까지
- 전 형 일 : 개별통보
▶ 입학생 특전 : 장례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FBA 수료증 수여(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해외 관련업계 연수(자비), 장례비지니스 관련한 다양한 인적교류의 네트워크지원 및 확대기회제공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http://gsbs.dongguk.edu
TEL.02)2260-3098 / FAX.02)2260-8627

미륵의 너른 품 속 각종 종교 발생


금산사 미륵전.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① 모악산 금산사


용화동 일대 전경.

산 이름은 모악산이요, 절 이름은 금산사이지만, 이름의 연원을 따져보면 모두 산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이 산의 옛 이름은 '엄뫼', '큰뫼'였다. '어머니산'이라는 이름이나, '큰산'이라는 이름이나 조선 고대의 산악숭배 사상이 반영된 이름이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면서 '엄뫼'는 '모악(母岳)'이 되었고, '큰뫼'는 '큰>큼>금'으로 음역하여 '금산'이 되었다고 한다.

큰 산인데다가 어머니 산이라서 모악산에서는 금만평야를 적시는 대부분의 물이 흘러나온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벽골제는 '벼의 골' 즉 '볏골'인데, 우리나라 도작문화의 발상지를 모악산을 감싸고 있는 너른 들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모악산은 이른바 평지돌출형 산인데, 그 산의 품이 넓고 깊어 모악산에 들면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스해진다. 이곳이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발상지이다.

미륵하생신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 용화동을 미롯한 금산면 일대에서는 여러 신흥 종교가 탄생한다. 증산교를 시작으로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종파가 이 일대를 근거지로 한다. 민중들은 사회적 소외가 심해지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마련이다. 이런 민중들의 의식은 때로는 혁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메시아에 대한 염원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먼저 절로 향한다. 미륵신앙의 모태인 미륵부처를 배알해야 하지 않겠는가. 겨울 차가운 물소리가 또랑또랑 귀를 씻는다. 주차장을 지나자 신험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미륵상이 있다. 조그마한 보호각 안에는 수십 개의 양초가 놓여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다. 보호각 옆 나무 앞에도 많은 양초가 놓여있다. 토템의 흔적이다. 아니 나무마저 부처로 보고 기도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증산교 건물.

물소리 들으며 절로 향한다. 날씨가 몹시 춥다. 손이 얼어붙는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분이 절에서 나온다. 미륵님 뵙고 가는 길이냐 했더니, 그렇다고 한다. "날마다 오시는 거에요?"라는 물음에 "야" 하고는 부리나케 내려가 버린다. 이름이고 뭐고 물을 틈이 없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절마당에는 사람 그림자가 드물다. 오가는 몇도 그저 사진 찍기에만 열중이다. 사람이 대상을 보지 않고, 카메라가 대상을 본다. 사람은 자기 눈을 버리고 사각의 틀을 통해 대상을 본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기계가 주인인 셈이다.

미륵전에 들어간다. 미륵부처의 얼굴을 보는데 여러 이름이 스쳐 지나간다. 신라의 고승인 진묵 스님, 후백제의 진훤(견훤)왕, 조선의 혁명가 정여립, 김개남과 전봉준, 보천교의 차경석과 증산 강일순 등.

계단(戒壇)으로 향한다. 통도사의 금강계단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2개 밖에 없다는 계단, 방등계단이 그것이다. 계단은 계율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곳이다. 방등(方等)이라는 말엔 평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계단 아래에서서 절마당을 바라본다. 사람의 발자국이 몇 개의 길을 만들어 놓았다. 한 사람이 길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걸어가고 있다. 길 안도 길이고 길 밖에 길이 되는 마당이다.

절집을 나와 용화동으로 향한다. 금산사 사하촌은 좁혀 말하면, 용화동과 계룡, 금산 마을이고, 넓게 말하면 금산면 전체로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용화동은 오래 되었고, 계룡은 박정희 대통령 때, 공비 소탕 한다고, 한두 집 흩어진 독가촌을 다 철거해 들어온 집들이여. 스레트 집들이 다 그 때 들어온 집들이여."

용화동에 산 지 50년이 되었다는 이창화옹(76 · 용화동)은 마을들이 형성된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모악산은 미륵신앙의 발상지
증산도 들어서며 사하촌 번창
기역자 구조 백년된 금산교회
초기 유교적 관습 엿볼수 있어

용화동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정확한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번창한 것은 1871년 증산 강일순의 증산도가 들어오고부터라 한다. 증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계룡은 두 마리가 있는데, 수컷은 충청도의 계룡산이요, 모악산 계룡봉은 암탉으로 진계(眞鷄)라 하였다. 증산 강일순의 후천개벽사상은 기아와 전쟁을 끊임없이 낳고 있는 근대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금산저수지 위 구릿골에는 동곡약방이 있는데, 그곳은 강증산이 '천지굿'을 했던 장소로 유명하다. 강증산의 천지굿은 '죽임'을 일삼는 선천시대를 끝내고, 그동안 천대 받았던 여성성이 신이 되는, 세상의 어머니가 신으로 화하는 '살림'을 위한 후천개벽이었던 것이다.

증산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름이 생소한 종교단체 건물들이 쉽게 눈에 띈다. 서백일교의 본거지가 있었다는 계곡으로 향한다. 띄엄띄엄 흙집들이 보인다. 산 깊은 곳에 이르자 허술한 건물 한 채가 있다. 서백일이 살았다는 곳이다. 한 스님이 기도처로 쓰고 있다.


마을 입구 미륵상.

수많은 종교가 발생한 곳. 용화동에는 오래된 교회가 있다. 금산교회이다. 기역자로 지은 기와집은 초기 교회 건물이다. 유교적 관습을 깨뜨릴 수 없어서 남자 신자와 여자 신자들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기위해 고안된 건물이다. 교회 안쪽에는 백년이 넘은 교회사와 관련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참 종교가 많다. 불교는 물론 증산도에 보천교에 기독교에, 또 아직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종교도 꽤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마을은 평온하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꽤 많지만, 타인의 종교를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다. 각자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용화동 일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미래 공동체의 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어머니 품안답다.

금산사= 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용화동에서 만난 **조말선** 할머니

"다 미륵님 모시는 한 식구"

"내 일생 미륵님을 믿응께, 그러지. 뒷산 어머니 산 아래 모다 사는 거여. 그런데 사는 기 형편 없어. 포도시 밥만 묵고. 친정은 경상도 하동. 노랑강 한려수도 거기는 내 친정 고지고, 쩌 청학동 살다 와부렀어. 청학동 일심교인이고, 진상교인이고, 다 미륵님 하나라."

마을 사람 몇에게 "금산사 미륵불을 치성으로 모신 분이 있느냐?"고 했더니, 여러 사람의 입에서 해주 어머니라는 말이 나왔다. 평생을 금산사 미륵님 믿고 산다는 할머니(조말선 · 78 · 계룡). 해주라는 이름은 할머니의 둘째 아들로 탱화를 그리는 아주 스님이다.

할머니는 혼자서 살고 있다. 자식들이 서울에 올라오라고 해도, "서울 사라 했다면, 금산사 밑에 용화동에 와 산다나?"하는 말로 일언지하 거절을 하였다. 미륵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어 이사를 해 왔다한다.

"눈에 보이고 거기에 혹하고 그러면 도가 아니요. 이 길이 올바르냐? 지가 생각해서 가는 기지."

할아버지(홍학기 · 70) 한 분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종교가 서로 다른 이들이건만, 정다움은 하염없다. 할아버지의 고향도 경상도이다. 그도 미륵님을 모시고 싶어 이곳으로 왔다 하였다.

"다 미륵님 모시는 한 식구지 뭐." 할머니의 말이 모악산을 닮았다.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2007년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모집

조기유학생모집
초 · 중 · 고1,2학년(남경국제학교)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10매 · 입학신청서 1통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내신 80점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삼화불교대학 교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1월 26일까지

5. 문 의 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가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재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은수(대덕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석사과정 합격자-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일주문



재소자 떡국 공양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회장 현성 스님은 2월 18일 안양교도소 재소자 2500명에게 떡국 공양을 하고 선망부모를 위한 다례를 올릴 예정이다.



군승사관후보생 동계교육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은 2월 6일부터 9일까지 육군부사관학교 충국사에서 2007년 군승사관후보생 및 요원 동계교육을 실시했다.



습지의날 대통령 표창

밀양 표충사 주지 청운 스님은 2월 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환경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3·1절 기념법회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은3월 1일 오전 10시 30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시우 박사의 <화엄법계와 우주심> 출간기념법회도 열린다.



정초산림기도 봉행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2월 21일부터 정초 산림기도를 봉행한다. 종범 지홍 지안 정만 법등 원택 스님이 초청법사로 참여한다.



교불련 회장 연임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김용표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2월 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11대 회장에 이어 12대 회장에 선임됐다.



운불련 회장에 선출

대구운전기사불자회 이규상 회장은 2월 4일 원주에서 개최된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제8대 운불련 회장에 선출됐다.

금강대 제3대 총장에 성낙승씨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회는 2월8일 제38차 이사회를 열고 금강대학교 제3대 총장으로 성낙승 박사를 선임했다. 성낙승 총장의 임기는 4년이다.

前 불교방송 사장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문화공보부 공보처 실장을 역임한 성낙승 총장은 1959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1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7년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정치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원우 기자

"종립대 위상 세우기 종단·학교 함께해야"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장 맡은 광조 스님



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 제69차 회의에서 6표를 얻은 법안 스님을 1표 차이로 제치고 새 종관위원장에 선출된 광조 스님(중앙종회의원·사진)은 종단과 동국대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종단과 동국대는 긴밀하게 상호 발전해야 합니다. 적대적인 모습으로 양쪽이 상처 입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동국대의 원만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님은 "종관위원장으로서 학교 문제에 대해 동국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는 의혹을 해소시키고, 종관위도 독선적인 모습으로 동국대를 압박하지 않겠다"며 이와 관련해 "동국대 이사장 스님과 만나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광조 스님은 12·13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공공영역의 종교오염 철저히 막겠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취임 박광서 교수



"이제부터는 공공영역에서 종교오염을 막는 운동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직을 사임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로 자리를 옮긴 박광서(58·서강대 물리학과·사진) 교수는 앞으로의 계획을 털어놨다.

박 대표가 새 일에 눈을 돌린 계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는 종교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 그리고 특정종교의 안하무인식의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건강한 사회는 요원하다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종자연이 주축이 돼 경부고속도로변에 있던 '고려은단' 광고판에 'JESUS LOVES YOU(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선교문구를 문제삼아 행자부와 지자체에 위헌소지 및 철거 요청 공문을 보내 철거 및 엄격 제한을 약속하는 답신 공문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립대인 서울대 내 시설에 기독교회관을 허가해준 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해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회당학원 새 이사장에 혜인 정사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2월 2일 대구 심인중고 이사장 회의실에서 제350회 임시 이사회를 갖고 제20대 이사장에 혜인(서울 행원심인당 주교) 정사를 선출했다.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혜인 정사는 선출 소감에서 "구성원들간 화합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회당학원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임기중 회당학원의 재정적 자립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혜인 이사장은 또 "서울 강남의 진선 여중고 이전문제는 재검토하겠다"며 "이사장 직을 수행하며 철저하게 정관과 규정에 의해 행정업무를 펼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안은 구성원들과 논의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이사장 혜인 정사는 1986년 신덕심인당(대전 중구 선화동) 교화를 시작으로 대전 득도심인당, 부산 범석심인당 주교 및 부산교구청장을 역임했다. 또 1994년 통리원 재무부장, 유지재단 이사, 1998년 제 10대 종의회 의원, 2001년 통리원 총무부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상임이사, 학교법인 회당학원 감사와 이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현재 제 12대 종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김군자 할머니 미국서 증언집회 참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원장 원행)에서 생활하는 김군자(82) 할머니가 미국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증언 강연에 참석했다.

김 할머니는 2월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정신대 증언 강연에 참석한데 이어 14일 열리는 아·태환경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다. 이번 방문은 캘리포니아 예술대 재학생인 석혜인씨 등이 마련한 미국 서부지역 증언과 세미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군 자 할 머 니 는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인 마이클 혼다 의원을 만나 결의안 채택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동림동문회 사무실 개소 현판식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모임 동림동문회(회장 혜자)는 2월 6일 서울 인사동 천마빌딩 905호에 사무실을 열고, 현판식을 봉행했다. 개소식에는 제5대 회장 자용 스님,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김성호 회장, 전 총동창회장 정인악씨 등 전·현직 임원진 30여명이 참석했다.

운문사 승가대학 졸업식 및 전강식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및 대학원(학장 명성)이 2월 2일 운문승가대학 43회 졸업식 및 운문승가대학원 9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65명의 학인과 2명의 대학원생이 배출됐으며, 졸업식에 앞서 열린 전강식에서는 명성 스님이 효탄 일진 명법 법장 스님 등 4명의 제자에게 강맥을 전수했다.

저소득가정 교복비 지원



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부산)은 2월 7일 교복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 가정의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25명에게 교복 상품권을 전달했다. '사랑의 교복지원' 후원금 마련에는 KB국민은행 영동사랑나눔회, 하나은행 IT사랑나눔회, (주)영주양행 등이 동참했다.

참여불교 재가연대 상임대표 이·취임식 봉행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2월 8일 '제 4기 상임대표 이취임 및 NGO 혁신모델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임기 3년동안 재가연대 조직 혁신 모델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 인사로 말문을 연 김동건 신임대표는 " 이 캠페인은 사회지도층이 먼저 앞장서 자기 시간과 소득의 3%를 이웃과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하루 3%의 시간을 자기성찰과 이웃을 위한 명상의 시간으로 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교육원장 청화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 명호근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이사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공 고

〈종헌공포〉본 종단 중앙종회에서 2007. 2. 1 개정한 종헌종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본 종단은 2007. 2. 1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종정이 대표이던 것을 총무원장을 대표로 하자는 이른바 **〈총무원장중심제〉**로 종헌과 종법을 개정 결의하였기에 즉시 공포 함.

종　　정 : 운해 벽송
원로원장 : 무진
원로위원 : 혜봉 창해 정향 법경 법성
종회의장 : 인담
종회의원 : 지상 원봉 성해 법선 운학 향운 금봉 운오 도봉 운영 명관 효담 원광 송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성해　　법규위원장 : 법선　　상벌위원장 : 운학
재산환수위원 : 지호 최동주　　종정예경실장 : 도암

총무원장 : 향운 (총무원장특보 : 불타)
부 원 장 : 혜담　호계원장 : 도천　포교원장 : 가은　교육원장 : 태운　기획실장 : 운오　복지원장 : 심상
문화원장 : 해일　사서실장 : 상호　의전실장 : 대련　총무부장 : 명운　재무부장 : 상기　호법부장 : 화운
사회부장 : 혜공　포교부장 : 우석　복지부장 : 우현　교무부장 : 지수　문화부장 : 법경　교육부장 : 선정
의전부장 : 삼륜　연수부장 : 도공　사무국장 : 김세웅

〈전국교구종무원장〉

직할 : 혜담　서울 : 진산　부산직할 : 연운　부산 : 효산　대전 : 일륜　울산 : 금봉　경기 : 인담
강원 : 법선　충북 : 석암　전남 : 마명　전북 : 운학　경북 : 도봉　경북남 : 영운　안동 : 명석
경남 : 광암　서부경남 : 범산　전국비구니회장 : 명관　비구니북원장 : 지성　비구니남원장 : 인명

불기 2551(2007). 2. 1

대한불교원효종 종　정 운해 벽송
종무원장　향운

공 고

1.제적자 명단

승적번호	성 명	법 명
92-51	이은우	정 안
93-162	최병일	덕 산
93-168	송병철	구 산
93-190	김도원	일 휴
94-40	권태현	혜 봉
2547-37	김춘갑	능 인
	김창호	청 일

1. 상기인들은 해종행위등으로 상벌위법 제4장 제10조 4항 7항에 의거 2007. 2. 1일부로 제적처리함. **(상벌위법 제4장 9조 1항)**

2. 2007. 2. 1일부로 모든 종무행위에 임시종정(김대관:벽송)인장? 직인과 실인(사인)을 시비당사자들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시 무효임.

3. 본 종단 기발행된 사원등록증·임명장 및 승려증·신분증은 현 총무원장(김윤철:향운)이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속히 갱신을 신청하여 재발급 받기 바랍니다.

불기2551(2007). 2. 1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상벌위원장 운학

자비와 자연 속 100% 재활 목표로…

불교계 복지법인이 지은 최초 병원, 28일 첫 진료



▲병원전경

운동치료실



개원 앞둔 '마하재활병원'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2월 초,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소식이 남쪽에서 전해졌다. 불교계 복지법인으로는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내원(이사장 정련)이 경남 거제에 재활전문병원 '마하재활병원'을 개원한다는 것이다. 2월 28일 첫 진료를 앞두고 시설을 개방한 마하재활병원을 7일 찾아가봤다.

▷ 환자 입장을 먼저 생각한 설계

경남 거제시 동부면 부춘마을. 80여 가구 남짓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 대도시에도 흔치 않은 재활병원이 우뚝 서 있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200평 규모에 100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마하재활병원은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투입된 건축비만 33억원. 정부지원금 23억과 사회복지법인 내원의 출자금 10억원이 보태졌다. 28일 개원에 맞춰 2명의 의사와 7명의 간호사, 15명의 물리치료사를 비롯해 35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규모도 크지만 내용면에서도 결코 다른 병원에 뒤지지 않는다. 병원은 재활의학과와 지역민을 위한 내과·가정의학과를 갖추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일 만큼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임을 감안해 인근 5개 면의 주민들이 언제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재활환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치료실을 1층에 두고, 입원실도 최대한 넓게 설계한 것도 마하재활병원의 특징이다.

1층에는 내과·가정의학과 진료실과 재활환자를 위한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열전기 치료실 등 재활 물리치료시설, 약국 등이 갖춰져 있다. 방사선 촬영이 더욱 쉽게 설계된 6-way X선 촬영기와 골밀도측정기 등의 첨단장비를 완비한 전문 치료시설도 1층에 위치해 있다. 물리치료실 우성식 실장은 "환자와 물리치료사가 1:1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재활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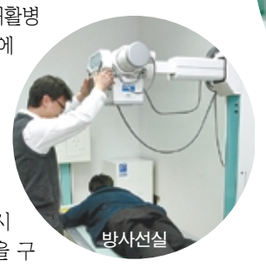
입원실이 있는 2층과 3층 역시 환자들의 쾌적함과 편리함을 고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홀을 두어 어디서든 하늘을 볼 수 있고, 2층과 3층 옥상을 개방해 환자들이 언제든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게 했다. 간병인이나 환자 가족을 위한 취사실과 탈의실, 환자를 위한 목욕탕도 별도로 마련했다.

마하재활병원 김윤경 사무국장은 "실내외 휴게공간을 줄이고 병상을 더 늘일 수도 있었지만, 환자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많이 두었다"고 말한다.

▷ 왜 재활병원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470만 명이 지체장애나 교통사고, 뇌졸중 등의 장애로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재활병원의 병상 수는 4000여 개에 불과하다. 더구나 환자가 입원 2~3개월 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하는 의료법상 환자들이 장기적인 입원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가장 재활이 필요한 시기에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방사선실

마하재활병원은 이처럼 뇌졸중(중풍)을 앓거나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질병을 얻은 사람, 관절염이나 허리통증 등 만성노인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재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로 병원을 세운 만큼 '경제적 이익'이 아닌 환자에 대한 '복지'를 건립이념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제의 깨끗한 공기와 자연의 품에 안긴 입지조건은 환자의 재활의지와 효율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개원 소식을 듣고 입원을 예약한 환자들도 상당수다. 마하재활병원이 부처님의 자비와 자연의 넉넉함 속에서 환자의 재활 의지를 싹틔우는 불국토가 되길 기대해 본다. (055)633-3000

거제/글=여수령 · 사진=박재완 기자

지역민 위해 내과·가정의학과 갖춰
환자와 물리치료사 1:1 치료 장점
건물 어디서든 하늘 볼수 있어 쾌적



물리치료실

interview 정련 스님(사회복지법인 내원 이사장)

"자비의 끈 환자·종사자간 이어지길"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조경 작업이 한창인 마하재활병원 앞마당. 작업복에 밀짚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으로 작업을 지휘하는 스님. 바로 마하재활병원 건립의 원동력인 정련 스님이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인부들과 함께 먹고 일하기를 1여 년째. 까맣게 그을린 얼굴의 스님에게 병원 건립과 앞으로의 계획의 여쭈었다.

-병원을 건립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니 불교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이나 오랜 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편히 요양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육체의 아픔이 없어야 마음도 편안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경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어 일정부분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았을 텐데

"개별 사찰이나 복지법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예가 없어, 직접 병원들을 돌아보며 설계에서 운영까지 노하우를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 병원을 세운다고 했을 때 종교적인 문제나 '혐오시설'이라는 오해 때문에 민원도 있었지만,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에서 모두들 설립 취지를 이해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당부한 말은?

"늘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고 마음으로 신의(信義)를 갖도록 한다면, 자비의 끈이 환자와 종사자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원을 운영하는 참뜻이 아닐까요?"

-앞으로 계획은?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반야원과 2월 개원하는 마하재활병원에 이어 노인실비요양원과 장애인직업자활시설 등을 지어 이곳을 '불교복지타운'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뒤따르는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게 병원을 잘 운영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여수령 기자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



★2007년 설날★ 부모님께 최고의 건강을 선물하세요!

심·폐, 오십견, 임파선에 온열침과 뜸을 동시에…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금강약돌에서는 공기속의 비타민 음이온이 1cc당 1200개까지 발산되며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해독성이 강한 황토, 바이오 세라믹을 이온 결합한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자기발열을 일으키며 온열, 숙성, 자정등 여러 작용으로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원활, 노폐물과 유해금속을 배출합니다.

장부의 혈맥에 온열자극으로 만성적 긴장감에서 오는 피로를 해소, 어깨결림으로 고생하는 오십견 등 질병예방에 효과적!!

- 좌·우측 어깨를 열침효과로 오십견을 해소하며, 겨드랑이에 모인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배출하고 임파선을 치유
- 목의 전·후 갑상선을 보호하면서 치유
- 혈맥을 자극하여 뇌의 혈액순환과심·폐의 혈을 안정적으로 유지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를 원활히

기모혈(氣募穴)과 기유혈(氣兪穴)을 금강약돌의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각각의 장부(臟腑)를 활성화 시켜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를 원활히 순환시켜 겨드랑이로 모여드는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빠르게 배출하면서 질병의 요인을 치유합니다.

허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침과 뜸의 효과로 동시에 혈자리를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심폐, 오십견, 임파선, 겨드랑이에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목의 전후 갑상선과 뇌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혈을 자극하여 허약한 부분(기능저하)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하여 인체의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여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판매원 : 금강닥터사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增補 太極四柱

易學은 본래 어려운 學問이 아닌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것은 古典 命理學者들이 주장하는 格局과 用神 때문이다.

四柱는 단지 陰陽五行의 變化法則일뿐 格局用神을 몰라도 정확하게 運命을 감정할 수 있다. 著者 역시 30餘年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해답을 얻지 못했다. 太極四柱는 命理學을 補完한 것이다.

古典 命理學은 10年,20年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誤判)과 실수(失手)가 많지만, 太極四柱는 감정(鑑定)이 正確하고 論理가 정연(整然)하므로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배우기가 쉽다.

이책은 著者가 前日에 出刊한 太極四柱를 획기적(劃期的)으로 수정보완(修正補完)한 것으로 著者가 多年間에 걸친 경험적실관(經驗的實觀)을 통한 핵심적(核心的)인 理論과 자료(資料)들을 모아 편집(編輯)한 것으로 四柱를 공부하는데 좋은 지침서(指針書)가 되리라 확신한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 감정하므로서 공부하는데 많은 참고(參考)가 될것이다.

◆ 著者 : 孫 中 山 (定價 : 25,000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會長(74세)
농협 100080-56-022361 (예금주 : 손선영)

주문 전화 053)324-2468 053)326-4585

2007 학년도 불교범패작법전수원 제2기 수강생 모집

새벽종성,조석예불,사시불공,각단불공,천도재,49재,사물(태징,북, 목탁,요령)다루는법,구명시식,점안의식등 상주권공(범음범패의식)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불교의식을 전혀 모르시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스님,포교사,재가불자,장차 출가를 계획하고계신분등 불교의식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좋은인연 되시길 기원합니다.

◆ 개강 : 2007년 3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학 과	수 업 일		기 간
기초의식반	매주 목요일 오전10시-12시		1년
상주권공반	범패반	매주 목요일 오후1시~오후3시	2년
	작법반	매주 목요일 오후3시~오후5시	

교육내용

◎ 기초의식반(평염불.목탁불공) : 새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천도재. 49재. 구명시식. 점안의식
◎ 상주권공반(작법반) :
〈바라춤〉 요잡바라. 관욕바라. 화의재바라.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명바라. 내림게바라.
〈나비춤〉 사방요신. 도량게. 다게. 운심게. 오공양. 모란찬. 삼귀의. 괴경이. 향화게.
◎ 상주권공반(범패반) : 초할향. 등게. 정례. 합장게. 고향게. 개게.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향수나열. 욕건이. 가지게. 사물다루는법. 천도재(범음범패). 49재. 구명시식. 점안의식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바라1벌(작법반)

불교범패작법전수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9-28(시청옆) ☎033)731-7759
E-mail : bumpae@yah○○.c○.kr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인진쑥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숟갈에는 한끼 공양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 (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과 엿질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삭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빵·떡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위장, 간, 어혈에 좋은 **인 진 쑥 조 청** 1.2kg = 58,000원

산사조청원의 명품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yjkukak.com

대자암 시방당 선원 가행정진 1년 결사 모집공고

1년 결사 기간
2007년 음력 4월 15일 부터
2008년 음력 3월 15일 까지

◆ 참가자격 : 비구승 및 거사
(삭발염의 방부비 없음)
◆ 모집인원 : 10명
◆ 정진방법 : 수면시간 23시~01시 까지 2시간
(수면시간 외 시간은 용맹정진과 동일함)
◆ 접수마감 : 2007년 음력 2월 15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계룡산 갑사 대자암
시방당선원 회주 영 파
전화 041)857-5880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한용 털신 최고의 선물



털 깔창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 15여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효시킨 강정식품으로 50여년전 법천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것 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할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러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 「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사극 「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 「감식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 「不老化精」입니다.

◆ 가격 : **정가 육십만원**(2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2병)**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1병 30만원)**

농협 705-12-337974 (예금주 : 이준식)

전 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행 자 모 집

복(福)중에서 발심공덕이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에서는 출가하여 사홍서원의 원력을 세우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뜻과 미주포교에 원력을 가진 발심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1) 무량사 행자 자격
● 연령 18세 이상 50세 이하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조계종 종법에 의거 승려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 연락 이메일 : muryangsa@empal.com

※ 무량사로 출가한 행자들은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하와이무량사 주지 백



대해 스님은 1946년 경기도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2년 향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았으며 일체의 주지 소임을 맡지 않고 전국의 제방 선원이나 토굴에서 참선정진해왔다.
6년 전부터 함양 안의면의 작은 토굴에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공양주 없이 손수 공양과 빨래를 하고 무, 배추 등 각종 농사를 지으며 지내고 있다. 손님이 왔을 때를 제외하곤 저녁 공양은 하지 않는다. 손님이 오면 함께 먹는 것이 대접이라는 생각에 스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고집하지 않는 까닭이다. 이처럼 스님의 일상은 웅덩이는 채우고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선지식을 찾아서 대해



발심하여 참구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룬다고 강조하는 대해 스님.

"발심하라…놓고 또 놓아라"

대해 스님 (변조암 주지)

들리지 않았다. 분명 대해 스님은 법문을 하고 있는데 들리지 않았다. 뚫린 귀로 들을 수 없고, 멀쩡히 있는 두 눈에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는 곳, 그곳에 나는 자리하고 있었다. 졸지에 귀머거리, 당달봉사가 돼 멍하니 앉아 있는 '나'를 향해 스님은 단호하게 취재 거절의 의사를 거듭 밝혔다.

"눈도 안 열리고 귀도 안 뚫렸는데 무엇을 듣고 무엇을 전하겠다고."

스님의 취재 거절, 그것은 처음 전화를 드려 찾아뵙겠다고 했을 때부터 예상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스님을 뵙고 나니 스님의 거절보다 더욱 난감한 것은 스님은 이미 법문을 해 마쳤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나'였다. 향곡 스님의 법문을 인용하며 법문이 이어졌는데 공기를 울리는 음성으로만 들릴 뿐 뜻이 전해지지 않았다.

"깨달음의 세계는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佛)이라 하더라도 만리나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옛날 스님들은 부처라는 말만 들어도 귀를 닦았다고 했어요. 설사 입을 열어 설한다해도 깨달음의 세계와는 천리만리요, 나도 너도 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신문에 내려고 하지 말고 다만 이 자리에서 발심하여 공부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스님은 '왜 나를 신문에 내려고 하느냐'는 아주 기본적인 물음으로 내 말문을 막았다.

"놓아버려라 하는 법문을 자주 듣지요? 무엇을 놓아 버리라는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흑씨 범지가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기 위해 양손에 꽃을 들고 부처님께 올리려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려라'하셨죠. 오른손에 든 꽃을 놓고 또 왼손의 꽃마저 놓아도 부처님의 '놓아라'는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범지는 "더 이상 놓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더 놓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쭙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한 것일까요? 바로 밖으로 6진(六塵)과 안으로 6근(六根), 중간의 6식(六識)을 한꺼번에 놓아버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안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하루아침에 참선을 한다고 선방에 무작정 앉아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망념과 번뇌가 놓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노력이 연마돼 있어야 공부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스님은 어린 시절 형님인 관묵 스님의 권유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수 십 만 번 외웠다. 속가에 잠시 들린 관묵 스님은 중학생이던 스님에게 '신묘장구대다라니' 십만독을 하면 날아가는 비행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관묵 스님의 말을 믿고 낮이고 밤이고 앉으나 누우나 다라니를 외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입에 익지 않아 발음도 잘 안되고 한번 읽은데 한 시간이 걸리던 것이, 나중에는 한숨에 일독을 하게 될 정도가 됐다. 스님은 출가 후 화두를 들기 시작했을 때 큰 장애 없이 공부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라니 독송의 힘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른 아침 일어나 금강경 독송을 하거나 나름의 공부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세요.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공부가 저절로 힘을 받습니다. 별의 별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몸만 앉혀 놓았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입과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참다운 공부입니다. 번뇌망상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잠시 잠깐에 서너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밤 12시에 앉으면 숨 몇 번 쉰 것 같은데 새벽 3~4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자꾸 지속이 되면 삼매가 무르익고 나중엔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화두가 여일하면서 동중일여, 오매일여, 무심삼매가 되어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선방에 앉아만 있는다고 망념 · 번뇌 사라지지 않아 마음 고요히 가라앉히는 연습 돼야 공부에 힘 얻어

평생을 선방이나 토굴에서 정진해온 스님은 장좌불와를 하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장좌불와를 한다고 내세우지 않지만 스님과 한철을 난 선방 수좌들은 몸을 누이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스님의 정진에 감탄을 할 정도다.

"청원 행사(靑原行思) 스님의 4세손에 석상 경저(石霜慶諸) 스님이 계셨는데, 석상 칠거(石霜七去)라는 화두로 유명합니다. 평생 칠거 법문만 하시다 돌아가셨죠. 일조백련거(一條白練去 한폭의 하얀 비단의 향로처럼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가야합니다. 또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게 변덕을 부리지 말고 한마음이 만년을 가도록 변함없는 마음으로 가 보세요. 산속의 말라버린 나무와 차가운 재가 대우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디 가서 대우해달라 하지 마라 말입니다. 또한 쉬어 가고 쉬어가며 회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 법문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서 계합이 돼도 견성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만 평생을 하던 스님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열반에 들자 후임자를 정하기 위해 대중들이 모두 모여 입승 스님을 후계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미승이 한사코 안 된다고 하면서 입승 스님에게 '조실 스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입승 스님이 '명일색변사(明一色邊事 한결같이 순일무잡한 경지를 밝힌 도리)'라고 대답했는데 사미승은 '그것은 조실 스님의 뜻이 아니다'며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입승 스님은 향 한줄기가 타는 동안 좌탈(座脫)하여 생사에 자유자재함을 보였으나, 사미승은 그 수좌의 등을 두드리며 "앉아 죽고 서서 죽는 일은 능하지만 우리 스님의 도리는 꿈 속에서도 보지 못했도다"고 끝내 긍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화두입니다. 내 말을 듣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체득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탐,진,치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경, 율, 론에 제 각각 스승이 있다고 하였으니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발심하고 공부하여야만 공부맛을 볼 수 있고 눈도 뜨이고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발심하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내 귀에 비로소 스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뭣고' 속에 깨달음의 요체가 모두 들어있으니 발심하여 참구하라는 스님의 말씀이 마음을 울렸다. 눈 뜨이고 귀 열린 이를 기다리며 몸을 숨긴 대해 스님의 긴 기다림을 뒤로 하고 변조암을 나섰다. 벼랑 끝의 외줄을 부여잡고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못하는 심정으로 변조암을 들어섰던 나는 변조암을 나서며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빛에 취해 천길 낭떠러지도 외줄도 모두 잊고 있었다.

함양/글 · 사진=천미희 기자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 × 30Cm
2 돈타레 5.6ϕ × 27Cm
5 약쑥향 1호 5.9ϕ × 20Cm
6 약쑥향 3호 4.7ϕ × 13Cm
7 약쑥향 4호 4.7ϕ × 10Cm
8 약쑥향 등초 3.1ϕ × 12.5Cm



▶ 식물성 양초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ϕ × 29Cm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ϕ × 27Cm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ϕ × 26Cm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경허 선사(2)

묻되, 경전으로 도배해도 됩니까?
답하되, 이 경계에 이르면 해 보게나

경허 선사가 연암산 천장암 인근 지장암이란 토굴에서 머물 때의 일화다. 엄동설한의 한 겨울을 토굴에서 홀로 정진하며 지내기로 한 스님은 낡고 헐어 벽에 틈이 벌어지고 문창이 뒤틀린 암자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장(佛藏)에 보관되어 있던 경전을 모조리 뜯어 풀을 바른 후 문이나, 벽, 방바닥, 천장까지 남김없이 바르는 것이 아닌가.

암자로 찾아간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스님, 성스러운 경전으로 이렇게 벽과 바닥을 발라 도배 장판을 해도 됩니까?"

경허 선사는 태연히 대답했다.

"자네들도 이러한 경계에 이르면 이렇게 해보게나."

토굴로 찾아간 제자들은 스승의 깊은 경지에 삼배를 올리고 물러나왔다는 선화(禪話)다.



불상 · 경전 · 조사라고 하는 고정관념 훌쩍 뛰어넘어야 '평상심'의 자유로운 삶 가능

경허 스님의 이러한 경지는 불상을 올라타고 불쏘시개로 쓴 단하천연 선사나, 경전을 '똥 닦는 휴지'라고 표현한 임제 선사의 경지와 다름이 없다.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경전이나 불상, 부처나 조사라는 고정관념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이다. <임제록>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逢佛殺佛 逢祖殺祖)"는 경지다. 이른바 '살불살조(殺佛殺祖)'의 가르침은 부처와 조사라는 고정관념과 선입관, 분별심, 집착을 타파하라는 것이지 부처와 조사를 죽이거나 무시하라는 망언이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부처와 중생, 보리와 번뇌, 옳고 그름, 사랑하고 미워함이라는 양변(兩邊)의 분별심을 버리지 못한 중생심으로 이러한 훼불(毁佛) 행위를 한다면 그는 혹독한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망설임과 후회, 두려움 없이 스스로 부처와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그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오래된 분별심부터 버리라는 것이다.

삼조승찬 대사는 <신심명> 첫 머리에서 "지극한 도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요 단지 취사선택하는 것을 꺼려할 뿐이니, 미워하고 좋아함에 얽매이지 많으면 단박에 오롯이 알게 되리라(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추함, 길고 짧음, 옳고 그름 등의 세간적인 분별심은 물론이거니와 선과 악, 중생과 부처, 보리와 번뇌 등 진리를 향한 길에서도 사량분별을 잠시도 쉬지 않는다. 일체의 분별과 망상이 끊어진, 물들지 않은 무심(無心), 청정한 '본래의 마음[本來心]', 평상심으로 사는 것은 선(禪) 수행의 골수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는 간화니 묵조니 하는 수행법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분별심, 차별심, 증애심(憎愛心)이 없이 무심으로 사는 생활은 평상심으로 일상생활을 지혜롭고 무애자재하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이자 수행이다.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생활화하면 화두를 들 필요도 없이, 어떤 좋거나 나쁜 경계가 오더라도 끄달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똥자루' 버리는데 슬플게 뭐 있나?

명허 스님의 '좌탈' 계기로 살펴보는 '좌탈입망'의 의미

"미혹되면 생사가 시작되고 깨달으면 윤회가 사라진다."(감산 <몽유집>)

몇 년 전 시작된 웰빙(well-being) 붐이 최근에는 잘 죽어야 한다는 의미의 웰다잉(well-dying)이란 신조어를 낳고 있다. 이러한 웰다잉의 원조가 생과 사를 둘로 보지 않고, 이를 초월해 생사를 자유자재로 누리는 선(禪)에 있다고 하면 지나친 견강부회일까. 생사와 열반의 대립을 초월한 선사들의 '생사 즉 열반(生死卽涅槃)'이란 깨달음의 삶과 극적인 임종이야말로 수행자들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던져주는 말없는 가르침에 틀림없다.

지난 1월 26일 오후 1시 30분, 앉은 채로 입적(坐脫)한 용담당(龍潭堂) 명허(明虛) 스님은 생사가 본래 없는 '본무생사(本無生死)'의 도리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2003년 입적한 조계종 제5대 종정 서옹 스님에 이어 청원 탄공선원의 탄공 스님, 고창 선운사의 기산 스님, 범어사 청련암의 양익 스님에 이은 또 한번의 좌탈 열반상인 것이다.

세수 63, 법랍 38세로 입적한 명허 스님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해발 1000여미터 고지에 2칸으로 토굴을 지어 12년동안 장좌불와(長坐不臥: 오랜 기간 눕지 않고 하는 참선)와 일종식(一種食: 하루 한 끼만 먹고 오후엔 일체의 곡기를 끊는 수행)으로 용맹정진해 온 숨은 도인으로 알려졌다. 열반하는 날 미리 입적을 감지하고 토굴 500여 미터 아래에 거주하는 홍금선(45) 신도의 부축을 받은 후 앉은 채로 좌탈한 것이다. 홍씨는 "스님께서 1주일전부터 몸져 누우셔서 시봉을 해드렸는데, 입적 당일 일으켜 달라 하셔서 몸을 앉히자마자 그대로 숨을 거두셨다"고 말했다.



여수 흥국사에서 2월 1일 봉행된 명허 스님의 초재.

선의 궁극적 목적인 생사 해탈 일깨우려
'生死不二'의 도리 보여주는 마지막 법문
'좌탈입망=깨달음' 아니지만 환희심 전해

예로부터 선가에서는 육신을 소멸해 없어질 껍데기와 같은 존재라 하여 일명 '똥자루'라 부르며 몸을 벗는 일에 대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히 선사들은 임종에 이르러 생사로부터 자유로운 경지를 좌탈입망(坐脫立亡 :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다)이라는 극적인 모습을 통해 생생한 묵언의 가르침을 보여준 사례가 적지 않다. 삼조승찬 스님은 뜰을 거닐다 나뭇가지를 잡은 채 서서 열반하였고, 보화 선사는 요령 소리만 남긴 채 허공으로 사라졌으며, 등은봉 선사는 물구나무 선 채로 열반하였다. 관계 선사는 몸을 태울 화장나무를 미리 준비해 그 위에 서서 열반했고, 보조 국사는 제자들과의 백문백답을 마친 다음 법상에서 내려와 마루에 앉아 그대로 입적하기도 했다.

고승들의 이러한 좌탈입망은 선(禪)의 궁극적 목적이 생사로부터의 해탈에 있음을 일깨우는 마지막 법문이기도 하다. 때문에 생사의 근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삼법인을 철저히 요달해야 한다. 모든 존재에 실체성이 없다는 무아와 연기법(緣起法)의 관점에서 보면 생(生)도, 사(死)도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꿈과 환상같이 실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생과 사가 모두 '토끼뿔', '거북 털'과 같이 이름으로만 존재하기에 생과 사가 다를 바가 없다. 즉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인 것이다.

따라서 선가에서는 생과 사, 생사와 열반에 대해 분별하는 것을 망념으로 본다. 생사와 열반을 분별하여 생사는 싫어하면서 열반은 얻어야 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결코 생사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열반의 참뜻은 '지금 여기'에서 생사로부터의 해탈을 그대로 체득하라는 가르침이다. 결국 피안(彼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차안(此岸)이 곧 피안이고, 세간이 바로 출세간이며, 생사가 바로 열반이고, 범부가 곧 성인이라는 '둘 아닌[不二]' 이치를 깨달을 때 삶의 현장 속에서 생사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故 명허 스님

좌탈입망이 그대로 완전한 깨달음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생사에 자재한 그러한 모습만으로도 후학들에게 환희심을 주고 발심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에 좌탈한 명허 스님 역시 남이 알아주건 말건 평생을 치열하게 용맹정진한 수좌(首座)로서 소리 소문없이 많은 스님과 신도들의 존경을 받은 스승이었다.

1944년 8월 17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전통 유학자이자 한의사인 이주천(李柱泉) 거사의 4남으로 태어난 명허 스님은 20세에 4서3경 등 한학을 통달했다. 5년간 막동리에서 서당훈장으로 4서3경을 가르치다가 문자와 세속 삶의 무상함을 느껴 지리산 화엄사로 출가해 69년 도광 스님을 계사로, 도천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화엄사 승가대학에서 대교과를 졸업한 스님은 오대산 북대와 상주 선역사 등 제방선원에서 운수안거의 세월을 보냈다. 이후 고향인 막동리에 산중토굴을 지어 장좌불와 수행에 들어갔다.

스님은 토굴수행을 하면서도 찾아오는 스님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한편 불치병에 걸린 많은 신도들의 병을 낫게 하는 등 남모르게 보살행을 실천해 왔다. 12년전 상주 선역사 일대의 토지 1만여평을 연꽃마을에 기증하는 등 평생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특히 중국 소림사에서도 수련자가 드문 <달마역근경(達摩易筋經)>을 수련, 본격적인 참선에 앞선 몸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스님은 <달마역근경>을 번역한 <역근세수(易筋洗髓)의 비결>이란 책을 무료로 보급하기도 했다.

한편 명허 스님의 다비식을 봉행한 화엄사 문도스님들은 스님의 사리를 화엄사와 상주 선역사의 부도에 봉안키로 했다. 또 스님의 유품인 사고전서, 대장경, 역경집성, 정통도장 등 3천 여권의 유 · 불 · 선 · 한학관련 희귀도서는 유언에 따라 화엄사 도서관에 기증했다. 화엄문도회는 2월 1일 거행한 여수 흥국사 초재를 시작으로 구례 천은사, 금산 태고사, 고양 선재정사, 고양 상운사, 예천 법흥사, 구례 화엄사 등에서 2재부터 7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여수 흥국사=김성우 객원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동안거 재가 참선수련회
곡성 성륜사는 2월 27일 오후3시부터 3월 4일 새벽 예불까지 정운당에서 동안거 참선수련회를 연다. (061)363-0081

참선법회와 아함경 강의
서울 열린선원 (www.opentemple.or.kr)은 매주 참선법회와 '알기 쉬운 부처님 경전 강의'를 실시한다. (02)386-9755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밸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삼고금강저밸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 (남성)님들을 위해 항상몸에지니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밸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밸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밸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멜토에너지와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밸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밸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해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밸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金나노중지갑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② 시어머니와의 악연을 녹이다

사진 속의 주인공

"이게 누구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A씨가 사진 한 장을 내민다. 사진에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얼굴표정이 매우 어둡고 찡그린 듯 한 인상이었다. "글쎄요…. 모르는 분인데요." A씨는 웃으며 "정말 모르시겠어요? 이게 바로 저예요. 5년 전 모습이에요." 믿어지지 않았다. "못 알아보시겠지요? 그럴 만도 하지요. 그 때는 죽으려고 절에 왔었으니까요. 죽기 전에 절이라는 데나 한번 가보자 하고 왔다니까요."

A씨는 맏며느리로 결혼하여 딸 둘을 낳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7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다. 그 때부터 힘겨운 나날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A씨가 무엇을 해도 못마땅해 했다. 딸만 낳아서 대가 끊겼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남편은 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았다. 딸들 교육에 대해서도 A씨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우겼다. 이러다 애들 교육까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까지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마치 전쟁하는 것 같았다.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살아야하는지 기가 막혔다. 그렇게 한 해 두해가 갔을 때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밖에 나가서도 시어머니의 욕하는 목소리가 맴돌았고 악몽까지 꾸게 되었다. 그래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또 마주쳐서 욕을 들어야 했다. A씨는 벗어날 수 없는 사슬에 묶인 것 같았다. 지옥이란 바로 이런 게 지옥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 내가 죽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내가 만든 인연 내가 녹인다

아는 사람을 따라 절에 갈 때 '그래, 여기라도 한번 가보고 죽자' 하는 심정이었다. 본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가장 놀란 사실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다음 생이라는 게 있어서 또 태어나게 되는데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라면 이전 생에서도 시어머니를 다른 모습으로 만났을 수도 있었다. '왜 내가 그런 시어머니를 만났느냐.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바로 내가 그 사람 만날 인연을 지어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내 탓이다.' 지금 시어머니와의 악연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 해도 계속될 뿐이다. 끔찍했다.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으니 내가 변해야만 그 악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A씨는 배운 대로 마음을 바꾸기로 했다. 우선 무슨 욕을 들어도 지나치게 끄달리지 않는 것부터 했다.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깊이 자리한 부처님 마음이 듣고 있다고 생각했다. 쉽지 않았다. 매일 절에 다니며 참회기도를 하게 되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내 마음부터' 녹이려고 노력했다. '모든 건 시어머니 탓'이라는 생각에서 '내 잘못'으로 돌렸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했으나 다른 사람들의 체험담을 들으면서 용기가 나고 점차 마음이 바뀌었다. 어떤 인연이었기에 이렇게 욕을 들어야 하는가. 아마 전생에 내가 그 분에게 욕을 많이 했나 보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몇 개월이 흐르자 정말로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다. 조금씩 시어머니도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서로 "미안하다" "죄송해요"하던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펑펑 울게 되었다.

업은 바꿀 수 있다

현재 A씨는 밝고 편안한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불행한 며느리로 살면서 달라진 것은 오직 A씨의 마음이고 그에 따른 노력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얼굴 관상이나 수상(手相)까지도 변한다는 말을 실감나게 합니다. 가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이렇게 사나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씨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스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인과다 업보다 그런 말 붙이지 마라. 모든 것은 고정됨이 없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시어머니 모시게 되면서 '불편한 관계'

우연히 절에 가서 인연 · 윤회 설명듣고 참회

"내 속 깊은 곳의 부처님께 맡기니 편안"

신행게시판

불교아카데미 '53도반과 함께…'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불교아카데미가 오는 3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53도반과 함께 떠나는 구법여행'의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강좌엔 불교환경연대 이사장 수경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전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박광서(서강대) 교수, 건국대 문과대학장 성태용 교수, 고려대 철학과 조성택 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 등이 강사로 동참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02)2278-1087

미황사 휴식형 템플스테이
해남 미황사가 매일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새벽 도량석 목탁 소리에 깨어나 부처님 앞에 예불을 올리며 시작되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는 일정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예불, 참선, 울력, 다담, 산행 및 산책으로 매일 이어지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는 가족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061)533-3521

전등사 불교대학 신 · 편입생 모집
강화 전등사가 3월 6일까지 전등사 불교대학 신 · 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불교 초심자 및 입교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불교입문, 불교의 이해와 신행을 교육하는 중급과정, 불교사의 이해를 강의하는 고급과정과 <금강경> 강해 및 포교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경전반이다. 동참금은 교재 및 교육재료비 포함 10만원이다. (032)937-0125

국제포교사회 영어 강좌 회원 모집
국제포교사회는 2월 12일~3월 30일 제5기 알기 쉬운 불교영어 강좌 회원을 모집한다. 강좌는 3월 31일~6월 2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예정)에서 진행된다. (02)722-2206

부처님 감사합니다

일흔살에 부르는 사모곡 (중)

박을선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결혼생활 35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이는 완전 눈의 초점을 잃고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병실을 옮겨 달라고 매달리며 호소했습니다. 수간호사가 병실을 옮겨주더군요. 2인실로 옮기자마자 전신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그 위급한 와중에 문득 청와대 육영수 여사님께 호소의 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호소의 글을 올리자 급물살을 탄 듯 그 소식이 전해졌고 병실까지 찾아오신 실무자분들에 의해 경위조사와 현지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 41세, 그이는 51세였습니다. 그 배려의 온정, 대한민국 국모의 갸륵한 미덕은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남편은 생명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완쾌된 몸으로 15년간을 일선 학교장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4남매 모두 대학까지 마치게 했죠. 그러나 그이는 65세 정년을 1년 남기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림: 문병성

장남은 배를 타는 마도로스입니다. 항상 망망대해에 활주로를 힘차게 긋고 국위 향상의 수출품목을 싣고 나르는 바다의 사나이죠.

배에서 떨어진 아들 무사 '가피' 실감

봉사하며 즐겁게 사는데 며느리가…

그런데 이런 일이! 배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배 접안을 하기 위해 배에 로프를 거는 순간 발을 헛디뎠는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옆 항구에는 배의 행렬이 줄지어 있었는데 높이가 5층 아파트 높이에 해당했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김해공항에 아들을 싣고 가려고 앰뷸런스와 휠체어가 대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아들은 떨어져 쓰러진 그 자리에, 엄마인 저는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염불만을 외웠습니다. 관세음보살만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살님의 보호 속에 절대 기적은 나에게 올 것을 확신하는 용기가 스러져가는 것을 부여잡았습니다. 동료에게 업혀서 나타나는 아들을 본 나는 혼비백산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나에게 좌절의 순간은 절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중얼중얼 염불만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고 진단을 맡았던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진 발목과 다리에 작은 금이 약간 갔을 뿐 다른 곳은 이상없이 괜찮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의사말씀이 "내가 병원생활 몇 십년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부처님 가피를 실감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아들이 "떨어지자 밑에 큰 튜브가 내 몸을 받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떨어지는 자리에 튜브가 있었던 것 역시 인연의 지중함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사고에도 부처님 가피로 살아난 아들은 20년 무사고 경력 기관장으로 망망대해를 힘차게 달리는 엔지니어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에 한 몫 하는 애국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산다는 것은 고(苦)에서 고(苦)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강력한 도전과 인내는 자기를 구할 수 있는 계기와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 저변에는 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힘이 깔려있는 것이지요. 이런 뜻하지 않은 불행에서 교묘히 재생의 길을 걷게 하는 인연의 힘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극하셨던 어머님이 발심하셨던 불심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1989년 지아비가 작고 한 후 큰 아들네에게 살림을 내어 주었습니다. 별 탈 없이 잘 살던 아들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 겨울이 닥칠 무렵인 11월말쯤 며느리가 동생의 사업부도를 막기 위해 시댁에 의논도 없이 집을 저당 잡혀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채무를 크게 남겨 놓은 채 카드빚이며 잔뜩 아들에게 지워놓고 이사 가듯이 짐을 몽땅 챙겨 집을 나간 겁니다. 그 연락을 받고 와보니 손주 남매는 텅 빈 집안에 굴러다니는 먼지 속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한창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3년생 초등6학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작고 후 봉사활동 간부를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회 안에서 내가 받은 만큼 내 몫을 하고자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혼신을 다해 봉사하며 살았는데 내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이가 없고 울분이 터졌습니다. 남을 돌보느라 내 집안을 돌보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그때 내 나이 64세. 노년 고개에 접어든 겁니다. 부채 독촉은 빗발치는 듯 했고, 아들이 목숨 던져 일하고 받은 봉급 봉투를 들고 (사조직 은행) 창구 직원에게 몽땅 내 놓고 뒤돌아설 때는 미친 사람처럼 돌변하고 말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계속)

2007년도 불교지도자 과정 제8기(3년) 신입생 모집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1. 교과목 및 교수

과 목	일 시	개설경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선사상Ⅱ	김호귀 교수
		팔천송반야경Ⅱ	김형준 교수
근본불교학과(주간,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산스크리트본 금강경	최봉수 교수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시간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7년 2월 1일 ~3월 8일(목)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 교 학 과 : 2007년 3월 5일(월), 6일(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7년 3월 8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9월 개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사찰음식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 불교학과(20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포교사,법사과정)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 사찰음식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7년 2월 1일 ~3월 6일 입학금 200,000원

전형방법	강의개강일시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정규반) : 2월 (불교학과주간반) : 2월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포교사과정) : 3월 6일 (다도학과, 법사과정) : 3월 6일 (장례문화학과) : 3월 6일 (미술학과) : 3월 7일 (한문학과) : 3월 8일 (사찰음식학과) : 3월 21일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2007 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교과목 및 교수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토요정규반	2년	매주 토요일(오후 3시~5시40분)	심만춘스님,문종순법사	이론,실기
• 수요야간반	2년	매주 수요일(오후7시 ~ 9시)	민병홍법사	실 기
• 범 패 반	2년	매주 금요일(오후 3 ~ 5시)	인각스님	실 기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30명(2년) • 범패반 30명(2년) • 야간반20명(2년)	• 한글불교의 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반명함판사진3장	2007년 3월 10일 토요일 까지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3:00 ~ 5:40 •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야간반) • 매주 금요일오후 3:00 (범패반)

3. 개강일시 2007년 3월 10일(토) 오후4시30분(정규반)
7일(수) 오후 7시 (야간반)
9일(금) 오후 3시 (범패반)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원 ·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체력 쑤~욱, 실력 쭈~욱

꿈을 펼쳐봐



매주 월요일 방과 후 시행되는 검도 수업. 참여 아이들이 죽도를 휘두르는 연습을 하고 있다.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 프로그램 현장



난나수련관을 찾은 학생이 열심히 한자 공부를 하는 모습.

방과 후 저소득층 아이들 위해 교실 운영
죽도 무게에 몸이 휘청거려도 웃음꽃 만발
중학생 언니·오빠들은 영어·논술 '삼매경'

2월 5일 서울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관장 김준기·이하 난나수련관). 이미 해는 넘어가고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킨다. 그 때부터 개구쟁이들이 하나 둘 1층 강당을 찾아들기 시작한다. 약 30여명의 아이들이 모이자 저마다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토닥거리기 바쁘다.

"정렬!"

하윤학(강북검도연합회 사무국장) 사범님의 목소리가 떠드는 아이들의 한 가운데를 갈라놓는다. 그제야 개구쟁이들은 강당에 모인 목적을 떠올린다. "참, 방과 후 교실에 검도를 배우러 왔지."

난나수련관에서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다. 학교 정규 수업시간이 끝나고 나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 수련관에서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것.

2005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난나수련관은 올 들어 수련관의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이사장 혜자)으로 바뀌어 불교계가 수탁하게 됐다. '나는 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청소년을 길러내기 위해 길을 더욱 잘 닦는 것이 법인의 목표다.

"머리, 어깨, 손목, 무릎!"

"머리~. 어깨~. 손목~. 무릎~."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사범님의 선창에 아이들도 기합소리를 따라 하지만 어째 축축 늘어지는 것이 신통찮다. 기합이야 어떻든 사범님을 따라하려 죽도를 휘두르는 팔에 힘을 실어본다. 하지만 평소에 그렇게 잘 돌아갔던 팔도, 폴짝폴짝 뛰어다녔던 발도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 아직은 동작이 힘에 부치기 때문이다. 몸이 휘청거릴 때 마다 아이들의 서로 마주본 얼굴에 배시시, 웃음이 피어난다.

검도는 예(禮)를 중시한다. 때문에 검도 시간에 떠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딴 짓'을 하는 아이에게도 '호랑이' 하 사범님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정지선(초등학생 가온반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반긴다.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보기 힘들었던 집중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너무 기특하네요."

검도를 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으냐고 묻자 아이들은 서로 대답하려 야단법석이다.

윤주(삼양초등 4)와 지영(삼양초등 5)이는 운동효과 '짱'이라며 엄지를 세운다. "다이어트도 되고 평소에 못하던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재밌어요."

개구쟁이들이 검도 수업을 하고 놀이 학습을 하는 동안 이들보다 머리 굵은 중학생 언니·오빠들은 수련관 3층 난나 교실에 앉아 있다. 영어·논술·한문 등 다양하게 마련된 수업을 듣기 위해서다.

이제 한창 예민해진 시기여서 그런지 중학생들의 수업은 초등학생 반보다 훨씬 이끌어나가기가 힘들다. 초등학생들은 친구를 사귀는 게 재미있어서라면 중학생들은 학원이나 학습지를 신청할 돈이 부족하다는, 훨씬 현실적인 이유를 안고 수련관을 찾는다.

중학생 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설희 선생님은 아이들의 의기소침한 모습이 누구보다 가슴 아프다.

"한번은 애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상업고등학교 가서 자동차 정비공 할래요'라고 해요. 집안 형편부터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마다 마음이 아파요. 선택을 강요당한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아이들에게 꿈이 없으랴. 소박하게나마 꿈 한 포기를 솎아주며 키워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에 난나수련관 방과 후 교실에 찾아오는 것이다.

재영(가명·화계중 3)이에게 난나의 의미에 대해 물었더니, 이들에게 현재 가장 두려운 것이 난나수련관에서 '재적'당하는 것이란다.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 현실을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나름대로 '동지'에요. 함께 꿈을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 당장 거창한 미래는 보이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글·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건강한 청소년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9기 '청소년회의' 청소년위원을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2007년 4월~2008년 3월이며 선발인원은 50명 내외다. 지원마감은 3월 20일까지. (02)2667-0874~5

서울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N&N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대상은 중2~고3 학생이며, 활동영역은 풍물놀이·마술·장애나들이·무료급식지원 등이다. 활동은 매주 토·일요일. 선착선 접수. (02)2250-0507

서울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직업탐방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기 직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꿈틀방송인'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중고등학생 40명이며, 2월 21~22일 양일간 진행된다. 참가비 2만원, 선착선 접수.(02)2226-6229

서대문청소년 수련관에서는

2월 이색체험 토요스쿨로 '와이어로 만드는 나만의 액자 만들기(7세~초등 6 대상)'와 '엄마와 함께 만드는 황금돼지 토피어리(초등 대상)'를 준비했다. 강습일은 2월 24일. 참가비 각각 6천원, 9천원. 2월 19일부터 선착순 접수.(02)330-0080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는

명상음악치료 강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강의는 총 3학기 과정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진행된다. 2월 28일까지 등록.(02)2260-3728~9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조계종 포교원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조계종 포교원과 '현대불교'가 2007년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996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던 현대불교가 다시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장이 여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방치하고는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새싹 불자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불교' 역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겠다는 각오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캠페인 전용 지면 두개면 마련

'현대불교'는 매주 2페이지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기찬 법회 현장과 각종 활동 현장을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만화, 칼럼 등의 연재를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종립학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는 30 곳이며 총 학급수는 750 개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포교 마당인 종립학교 교실마다 '현대불교'를 보내 어린이·청소년들을 불교와 보다 친근하게 인연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또 각 종립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과 교법사, 도서관, 불교 동아리 등에서도 '현대불교'를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립 중고교생 논술 경시대회

논술이 입시의 최고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종립 중고교생들의 논술 기량을 높이고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논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논술 경시대회를 개최해 종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돕겠습니다.

■ 수험생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자비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해 주목받고 있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2월 10일과 11일, 24일과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자비명상'을 진행합니다. (문의 02-2004-8237)

■ 희망의 템플 스테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찰에서 며칠 묵으며 각종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현대불교'는 방학을 이용해 보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겠습니다.

캠페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국민은행 006-01-0783-279(현대불교)

보우승가대학 (2007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지금! 사찰발전에 필요한 실제적 이론과 의식을 최우선으로 배울 학인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1주일에 2일만 할애하면 교수님들의 열의와 교육제도로 실력을 완성해 드립니다.

1.입 학 안 내

1 모집학과 및 정원 ● 불교학과 : 30명 ● 범패학과 : 30명 ● 불교문화예술학과 : 30명

2 응시자격
- 신입생 : 불교적 소양과 도타운 신심을 가진 성인
- 편입생 : 지원학과에 걸맞는 실력을 갖춘 이

3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교부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02)763-5213
- 기 간 : 2007년 1월 15일 ~ 2월 26일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반명함판 사진 (3cm×4cm) 3매
4. 종단추천경우 : 종단 대표자 추천서 1통

2. 면 접 일 시 ● 2007년 2월 27일 오후 2시

3.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게시판

4.교 과 목

불교학과	불교학개론, 불교사(인도, 중국, 한국), 철학개론(동양, 서양), 비교종교학, 초발심자경문, 교리발달사, 사미율의(기초의식), 원전강독(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구사유식, 계율론, 대승사상, 밀교개론, 사원경영(종무행정, 상담), 선학개론, 포교학, 불교와 사회복지
범패학과	상주권공(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관음 시식, 화청), 작법무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불교의식 이론불교학개론, 불교사(인도, 중국, 한국), 계율론, 선학개론, 교리발달사, 포교학
불교문화 예술학과	재설비 (도량장엄, 불단장엄, 고임새, 지화), 전통수가사, 서예(기초,장엄서예) 불교학개론, 불교사(인도, 중국, 한국), 계율론, 선학개론, 교리발달사, 포교학
특 강	◆ 생활역학 : 명리학 이론과 실전, 길흉방위, 풍수지리,작명,택일, 궁합. ◆ 호 적 : 천수가락, 염불가락, 요잡가락, 능게가락, 취타가락

5.교 수 진 신규탁(연세대교수),김영진(동국대교수),김치온(동국대교수),문무왕(동국대교수), 이효원(한국종교문화연구원),일휴스님(경산강원 강주), 지홍스님(승가대이사장), 금담스님(승가대부학장), 능해스님(승가대교수),경허스님(승가대교수), 대각스님(승가대교수),대혜스님(승가대교수),백영혁(승가대교수)외 교내외석학

6.문 의 (02)763-5213. www.boweosamgha.com

보 우 승 가 대 학 학 장

성적이 쑥쑥 오르는
10분 명상 기공

넘치는 자신감·바른자세, 마음에 있어요


부산금정고교생들의 선기공체조 모습.

5. 마음을 담는 그릇 〈몸〉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선기공과 사람의 참품세

우리의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몸이 바르지 않으면 마음도 따라서 굴절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생각과 행동이 나오듯 우아하고 늠름한 기상 또한 반듯한 자태와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주 자연스런 향기이다. 소중한 우리의 몸을 위해 '참 품세'와 '선기공체조'를 해 보자. 무리하지 말고 틈틈이, 일상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하면 가볍고 산뜻해진 내 몸과 마음이 그 효과를 말해 줄 것이다.

구부러진 척추 반듯하고 균형있게

⊙ 사람의 참 품세

학생들이 공부할 때의 구부린 자세는 척추를 휘게 하고 가슴이 오그라들게 하여 호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척추측만증은 주로 나쁜 자세가 원인인데 성장과 함께 서서히 진행하여 결국 몸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그럼 우곡선원에서 시행하는 '사람의 참 품세'로 반듯하고 균형잡힌 몸을 만들어 봅시다.

■ 이렇게 해 보세요

① 편안한 복장으로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무릎을 세워 눕고 다리는 어깨넓이 만큼 벌린다.(차가운 바닥은 피하고 머리, 어깨, 허리, 발바닥은 바닥에 닿게 하고 무릎만 세운다) ② 발을 11자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고 발끝은 살짝 안으로 향하게 모은다. ③ 양어깨에 힘을 빼고 머리는 딱딱하고 평평한 물체(두께 3-4cm 정도의 책)를 괸다. ④ 두 손은 배(또는 가슴)에 살짝 얹고 날숨으로 긴장을 풀면서 20분 정도 자세를 유지한다. ⑤ 일어날 때는 목을 꺾지 말고 누워 있는 자세에서 그대로 옆으로 몸을 굴려 기는 자세처럼 무릎과 두 팔로 몸을 지지하며 일어난다.

심신 조율 통해 몸의 기혈 원활히

⊙ 선기공 체조

선기공 체조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자기 몸 챙기기에 소홀한 현대인들의 심신을 부드럽게 조율하고 몸의 기혈을 원활하게 해준다.

특히 참선을 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선기공 체조를 하면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큰 도움이 된다. 서 있는 자세에서 하는 입공, 앉아서 하는 좌공, 장소에 상관없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세공의 세 종류가 있고 마무리 동작은 학춤사위로 끝맺음한다. 총 26가지의 동작이 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모든 동작은 날숨으로 시작하여 날숨으로 마무리)

● **좌우로 몸 비틀기(입공)** ① 양팔은 가볍게 옆으로 벌리고 발은 어깨넓이로 벌리고 선다. ② 숨을 내쉬며 왼쪽부터 천천히 양 팔과 몸 전체를 비틀어준다. (이때 양 팔은 굽어지면 안 되고 시선은 오른발 뒤꿈치를 향하게 한다.) ③ 방향을 바꾸어 8회 반복한다.

● **다리 꼬아 허리 비틀기(좌공)** 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바깥쪽에 꼬으듯 세운다. ② 오른손은 엉덩이 뒤쪽을 짚어주고 왼손은 오른쪽 무릎 바깥쪽으로 돌려 발목을 돌려 잡아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준다. ③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오른쪽으로 비틀어 준다. ④ 방향을 바꿔 각 5회 반복한다.

● **손깍지 끼고 비틀기(세공)** ① 양손을 꼬아 깍지를 낀다. ② 숨을 내쉬면서 깍지 낀 손을 가슴 안쪽으로 끌어당겨 돌려서 바깥으로 밀면서 펴준다. ③ 손의 위치를 바꾸며 5회 반복한다.

● **학춤사위** ① 앉은 자세에서 왼 손은 위로, 오른손은 아래로 대각선이 되게 하고 가슴을 약간 앞으로 내밀면서 양팔을 서로 반대쪽으로 최대한 비튼다.(시선은 위쪽 손바닥을 향하게 한다.) ② 숨을 크게 내쉬면서 양팔을 무릎에 가볍게 내려놓는다. ③ 좌, 우 팔 위치를 바꾸어 3회씩 반복한다.

김혜경 선생님(우곡선원 교육지도자불자회장)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 부모님 따라 절에 가기 챙피해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자꾸 절에 같이 가자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부모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친구들 보기 창피해요. 제 주위에는 절에 다니는 애가 없어요. 어쩌면 좋죠? (ID:peaceful93)

운산스님의 말씀

많은 사람 만나보고 느껴보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는 부모님 따라 절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에 다니며 그것을 자랑스레 이야기했지만, 그 때마다 나는 어쩐지 부끄럽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절에 가면 또래 친구들도 없었고 알 수 없는 법문을 들으며 앉아 있는 것이며, 무작정 절을 시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따라 절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반갑지만, 절에 나오기 싫어하는 모습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한시가 아까운 중·고등생에게 매주 법회는 참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믿어라"고 하시지 않고 "깊이 생각해봐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기보다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참 좋다"고 합니다. "아, 괜찮네?" 하고 느끼다보면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게 되겠지요. 뭐가 그리 좋은 것인지는 앞으로 차차 스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 같으면 그 때쯤에 "나도 부처님 제자 할래요"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겠지요? 지구에 사는 60억 인구 가운데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에 옥천암에서 만나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낳아서 키워주시고 이렇게 만나도록 계기를 만들어주신 부모님께 한 번쯤 더 "고맙습니다"하고 인사 드려도 좋을 듯합니다.

(서울 옥천암 중·고등부 지도법사)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안편 | 제9장 이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編·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매장 埋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공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만남·그리움·지혜…깨침의 이야기들

문형렬 시인 '동자승 말씀이 기가 막혀', 창작동화·설화 리메이크 30편

소설가이자 시인인 문형렬씨(사진)가 새 봄보다 빨리 '봄소식' 같은 이야기로 찾아왔다.

'가슴에 꽃불 하나 켜는 이야기'라는 설명과 함께 내놓은 새 책. <동자승 말씀이 기가 막혀>다. 동자승이 뭐라고 했기에 기가 막힌다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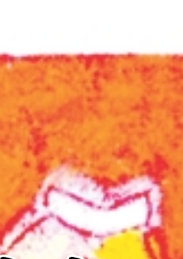
30편의 이야기로 묶여진 이 책의 제목이 <동자승 말씀…>으로 정해지기까지 말이 많았다고 한다. 도솔 출판사 임동헌 주간이 이 제목을 고집했고 주변 '글쟁이'들은 반대했다는 것. 대중가요 제목의 패러디 같기도 하고 뭔가 산뜻한 이미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반대 요인이었다. 그러나 임 주간이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누군가 강하게 제목을 바꾸자고 어필했을 때 "차라리 책을 내지 않겠다"고 응수할 만큼 완고 했던 임 주간의 고집.

결국 임 주간이 이겼다. 반대론자들은 "책이 나온 뒤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 고집이 이해됐다"고 백기를 들었다.

동자승. 독자들에게 동자승이 주는 이미지는 '순진무구'와 '애틋함'일 것이다. 어린 나이에 절 생활을 하며 사람의 때는 묻지 않았지만 본성적으로 사람의 정을 그리워하는 이미지 말이다. 그런 동자승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한마디 말의 울림은 깊고 그윽하다.

<동자승 말씀이…>에 실린 30편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 깊이와 그윽함으로 때 묻은 삶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독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해 준다. 사랑과 이별, 기쁨과 아픔, 나태해 지는 구도심을 콕콕 찔러대는 바늘 같은 재치…. 이러한 '말씀'들이 살아 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고 살아갈 날들을 더 경건하게 만든다. 그래서 동자승의 말씀에 기가 막히는 쪽은 동자승이 아니라 독자다.

작가 문형렬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일부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경전 속에 나오는 일화들이나 사찰 설화, 옛 스님들의 일화 등을 새롭게 구성해 색다른 '맛'을 가미해 냈다. 창작된 이야기들보다 패러디 된 듯한 옛 이야기들에 더



동자승 말씀이 기가 막혀
문형렬 지음
도솔 | 9500원

정이 가는 것은 순전히 시공을 초월해 '이야기 거리'들을 끌어 모아 요리하는 작가의 솜씨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동자승은 스승에게 날마다 "솥을 다시 걸어라"는 호통을 들어야 했다. 아무리 잘 걸어도 잘못 걸었다고 다시 걸라고 호통이다. 그래서 솥을 어떻게 걸어야 스승을 만족 시킬까를 궁리하고 또 궁리한다. 구정(九鼎)선사 이야기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은 물고기를 잡아 국을 끓이는 천렵꾼들을 만난다. 그 솥 안의 물고기 국을 다 마시고 개울에 설사를 하니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는 오어사와 관련된 원효 대사와 혜명 대사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한다. 다시 이야기는 동자승의 고민으로 돌아온다. 동자승은 어떻게 솥을 걸어야 절에서 쫓겨나지 않고 스승의 인가를 받을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거꾸로 걸어 버렸다. 그러나 스승에게 얻어맞기만 했다. 그렇게 아홉 번째 솥을 걸고 난 뒤, 동자승은 솥을 껴안은 채 깜빡 잠이 든다. 스승이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친다.

"솥은 어디다 걸었는고?"

"스승께서 걸으라고 하신 곳에 걸었습니다."

"그곳이 어딘고?"

동자승은 어디다 솥을 걸었을까? 아무 말 없이 솥 안에 들어가 앉았다.

"그래, 이제야 솥을 걸 줄 아는구나."

<동자승 말씀이…>는 '사람의 향기를 잇는 다리, 만남' '사람의 추억을 잇는 다리, 그리움' '사람의 가슴을 잇는 다리, 지혜'를 테마로 각각 10편씩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이야기들을 읽으며 "몇 차례 눈을 지그시 감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했다"는 안도현 시인은 "동자승은 세상에서 가장 해맑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세상을 내려다보며 비움이 무엇인지 인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한 까닭이지요"라 말한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달라이라마가 말하는 '마음과 생명

"색맹의 경우, 색채 없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모양 없는 색채를 볼 수도 있습니까?"

"재미있는 지적입니다. 인간은 모양을 보는 능력을 잃을 때 또한 빛을 보는 능력을 잃게 되고, 그로인해 볼 수 없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1989년 가을, 미국 뉴포트에서 티베트 제 14대 달라이라마(텐진가쵸)는 서양의 신경과학자 및 정신의학자들과 만나고 있었다. 제 2차 '마음과 생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열린 것이다. 그 회의는 '의식(意識)'이란 주제를 두고 달라이라마와 서양학자들이 서로 묻고 답하면 되묻고 다시 대답하는 형식의 열띤 토론이었다. 즉 '마음은 뇌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작용의 2차적 효과일 따름인가?' '의식이라는 존재는 너무 미세해서 오늘의 자연과학은 아직 의식의 본질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가?' 등등의 난제들을 사이에 놓고 서양과학과 불교철학의 대가들이 각각의 통찰을 '의식'이라는 심연의 바다로 부터 길어 올리는 것이었다. 그 결과물들이 이 책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달라이라마는 특히 이 책에서 불교의 정신적 과정들에 대한 경험적 관찰들을 조목조목 예로 들며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달라이라마, 과학과
자라 호우쉬만드, 로
빙스턴, 앨런 윌리스
남영호 옮김
알음 | 1만2000원

서양에 소개된 불교의 정체는?

현재 서양에 전해지고 있는 불교는 불교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모든 교리와 사상, 수행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그리고 대승불교중의 현교와 밀교를 모두 포함한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을 간추려 설명한 것이 <티베트불교입문>의 원작인 2001년에 출간된 <불교의 에센스>다. 원작의 책을 굳이 이번에 <티베트불교입문>이라고 바꿔 다시 출간한데는 그 이유가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들은 현재 서양에 전파된 불교 전체의 핵심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엄격히 말해 한국불교의 입장과는 사뭇 달라 국내 불자들에겐 생소한 것 투성이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교리중에서도 티베트 불교와 연결되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섞어 티베트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이 책의 초반부는 사성제와 인연법, 육바라밀 등 우리에게도 어느정도 친숙한 불교의 핵심 주제들을 다뤘다. 중반부는 중관과 유가행, 불성, 보살의 오위와 십지 등 좀 더 깊이 들어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4종 탄트라와 나로파의 6지 유가, 마하무드라 등 인도에서 티베트로만 전래돼 온 특유의 밀교를 소개했다. **김주일 기자**



티베트불교입문
탈렉 캅핀 림포체 지
유기천 옮김
청년사 | 1만6000원

지공 스님의 시에 담긴 중생예찬과 성불

<대승찬>은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금릉의 지공 스님(418~514)이 황제에게 지어 바친 글이다. 짧은 시구 속에 불교의 진수를 잘 표현한 <대승찬>은 제목 그대로 대승(大乘) 즉 대중(大衆)에 대한 찬탄을 노래한 것이다.



대승찬강설
무비스님 지음
불광출판부 | 9000원

저자인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범어사 승가대학 학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인터넷 전법도량 염화실'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 <대승찬>을 알기 쉽게 강의해왔다. 이 책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아 혼자서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돼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
1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
2	옛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장경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
4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
5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민병직	운주
6	꽃비	원성	마음의
7	금강경 공부하기	정천구	혜
8	유식학입문	오형근	대
9	아름다운 절 아름다운 스님	이연정	민족
10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 브뤼넬	솔바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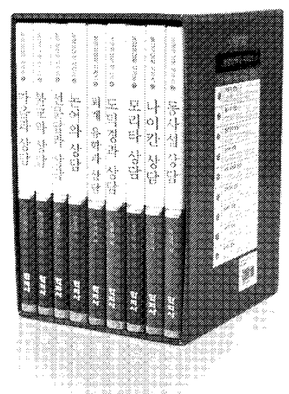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국내 최초로 동양상담에 주목하는

동양상담학 시리즈 ❶~❾



① 마음과 상담 ② 불교와 상담 ③ 선문답과 상담
④ 논어와 상담 ⑤ 퇴계 유학과 상담 ⑥ 도덕경과 상담
⑦ 모리타 상담 ⑧ 나이칸 상담 ⑨ 동사섭 상담

박성희 저 · 4×6판 · 양장 · 각권 7,000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유한 상담의 모습을 찾는다

상담의 발상지가 서양이다 보니, 서양에서 들어온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한국 사람에게 어울는 상담 지식을 찾아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적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상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스며 있는 삶에 대한 철학과 사상과 문화적 전통을 뒤보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시리즈는 이와 같은 고민의 발로이다.



붓다의 심리학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붓다의 심리학
마크 엡스타인 지 · 전현수 외 공역
304면 · 신국판 · 양장 · 15,000원



완전한 자기 구현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上, 下
존 카밧진 지 · 장현갑 외 공역
384/352면 · 신국판 · 반양장 · 각권 10,000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련을 소개하는 실습
요가 첫걸음
샌드라 앤더슨 외 공저 · 조옥경 외 공
252면 · 국배변형판 · 반양장 · 20,000원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삼성문화재단에서 되돌아온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친견법회

'부처님진신사리'를 친견하실 수 있는 기회!

지난 해 국민적 관심과 불교계를 떠들석하게 MBC 9시 뉴스데스크, 시사매거진 2580, YTN, KBS 추적60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각종 언론에 반영되었던 삼성문화재단에서 되돌아 온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가 **'특별친견법회'**를 통해 공개됩니다.

정해년 황금돼지해 정초성지순례에 맞춰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생일대 단 한번만이라도 육안으로 부처님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불자수행공덕으로만 가능하다' 하였으니 친견인연으로 많은 공덕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 특별친견법회

- 일시: 2007년(불기2551년) 2월 4일(입춘)-5월 24일(석탄일)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5교구본사 봉선사, 가평군청
-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현등사, 삼성문화재단
- 후원: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TV, 불교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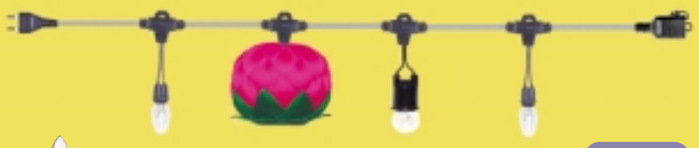
친견하실 사찰 및 단체는 미리 연락 바랍니다.

현등사 종무실 031-585-0707
총무스님 031-585-7967

한북제일지장극락도량
운악산 현등사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163/477-839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LED전구(정품)

장엄용(법당) 전기초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시간 조절 가능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기초반 10기, 경전반 8기, 야간반 3기 **2007년 3월 8일 개강**

안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 ▣ 기초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 (기초교리, 불교학개론)
- ▣ 경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금강경-권기종 교수님)
- ▣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기초교리, 금강경(권기종 교수님)

안양불교대학 특강교수

- ◆세민스님 - 전 해인사 주지
- ◆도영스님 - 전 조계종 포교원장
- ◆법산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 ◆현각스님 - 동국대학교 교수
- ◆태원스님 - 중앙승가대학 교수
- ◆정산스님 - 서울 경국사 주지
- ◆현종스님 -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 ◆원철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 기획국장
- ◆현호스님 - 안양불교대학장
- ◆권기종 교수 - 전 동국대 사회교육원장
- ◆엄 앵 란 - 불자 방송인
- ◆남일우, 김용림 - 인기 불자탤런트
- ◆최 영 중 - 불자가수 '108가요 진행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124번지 (국민은행 안양1번가 지점) 문의전화 ☎031)444-5935~6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통신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16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7학년도 제16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부산교육원 (우편 · 팩스 접수가능)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대가람 창건 불사에 동참하실
불심이 가득한 인연있는 불자님을 모십니다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중부고속도로변에
자리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의 조건으로 창건중인 사찰입니다.
창건불사 동참 불자님이나, 창건에 큰 뜻 을가지고 계신 분을 모십니다.

- 대지 시가로 70여억원 담보제공 가능합니다.
- 연락처 : 017-277-1026 (담당자)



원치 않은 곳, 그러나 최고 명당에 묻힌 태조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③

1대 태조 건원릉(1)

태조 이성계 <1335~1408년, 74세. 재위기간 6년 2개월, 1392년 7월(58세)~1398년 9월(64세)>



건원릉 봉분을 덮고 있는 함흥 갈대.



건원릉 능제 지내는 모습.

태조는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늦은 나이에 즉위했다. 물려받은 왕위가 아니라 쟁취한 자리다. 역성혁명을 일으켜 58세에 왕이 됐다.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 뒷방 늙은이가 되기에도 늦다. 요즘 세상에도 정년퇴직감 아닌가. 태조 이후에는 10대 청소년기에 즉위한 왕이 13명이나 된다.

이성계는 용맹과 추진력으로 뭉쳐진 인물이다. 지혜와 자비, 반성과 성찰이 보충되지 않았다면 실패한 쿠데타의 주역이 되었을 것이고 조선의 역사는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났을 것이다. 무학 대사는 이성계를 일개 장수에서 군왕으로 이끈 선지식이다. 나옹화상의 제자인 무학은 고려 왕조의 무능과 부패에 절망하고 있었다. 새 왕국 건설을 꿈꾸는 혁명가임과 동시에 이성계의 충실한 인도자, 스승이다. 무학은 천문지리와 음양도참설에 밝았고 꿈 해몽에 능했다.

태조 즉위 이전에 이성계의 꿈을 해몽하여 즉위를 예언했다. 무학이 설봉산 아래 토굴에 기거하고 있을 때 이성계가 찾아와 물었다.

"꿈에 집을 부수고 들어와 서까래 셋을 지고 나갔는데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허허, 경축할 일이요. 서까래 셋을 진 사람은 왕(王)을 가리킵니다."

"꽃이 거울에 떨어지니 이 꿈은 또 무엇입니까?"

"꽃이 떨어지면 마침내 열매가 열 것이요, 거울에 떨어지니 어찌 소리가 없으리오."

이성계는 즉위 후 송도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궁궐터를 잡기 위해 무학 대사를 대동하고 여러 차례 한양을 답사했다. 대사는 지금의 왕십리를 궁궐터로 잡으려 했다. 그때 검은 소를 타고 가던 노인이 소를 툭툭 치면서

"이놈아, 이 무학만치나 미련한 소야!"

대사는 그 소리를 듣고 노인에게 다가가 절을 하고

"어르신, 제발 가르쳐주십시오."

노인은 껄껄 웃으며

"여기서 십 리를 더 들어가시오."

이렇게 해서 십 리 더 들어간 곳이 지금의 경복궁이다. 십 리를 더 가라고 하여 왕십리(往十里)라는 지명이 생겼다. 그런데 경복궁을 짓는 중에 대들보가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대사가 고민을 하는데 하루는 밭을 갈던 노인이 "그 터는 학의 형상이니 날개부터 눌러야 하오"라고 충고했다. 대사는 날개 부분에 4대문을 먼저 지었다. 그러자 궁이 무너지지 않아 무사히 완공했다.

대사는 태조의 왕사로 있으면서 조선의 안정을 위해 노년의 전부를 쏟았다. 태조에게 설하기를 "유교는 인을 말하고 불교는 자비를 가르치지만 그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필 때 백성의 어버이가 되고 나라가 굳건해집니다. 더불어 순간적인 잘못으로 죄를 지어 옥에 갇힌 사람들을 용서하여 새로운 삶을 열어 주십시오."

대사는 자신의 소임이 끝났음을 알고 조용히 왕사직에서 물러나 수행에만 전념하다가 1405년 79세를 일기로 열반했다. 조선 개국의 핵심 주체, 이성계의 스승이면서 일체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유일한 인물이 무학 대사다. 역할에 대한 지분확대를 주장한 정도전, 이방원 등이 피투성이 싸움을 한 것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성계의 입가에 넉넉한 웃음이 넘쳤다. 도읍지가 완성된 축하 잔치에서 있었던 일이다. 태조가 호방하게 웃으며,

"오늘은 고하를 막론하고 말을 터봅시다. 무학 대사를 보니, 꼭 돼지 같소이다. 허허허!"

대신들도 따라 껄껄 웃었다. 대사는 태연하게 받아쳤다.

"전하께선 부처님처럼 보이십니다."

태조가 오히려 당황했다.

"과인은 대사를 돼지라고 했는데, 대사는 어찌 과인을 부처라고 하는 것이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입니다."

태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잠시 후 껄껄 웃으며,

"과인이 졌소이다. 그 말씀 깊이 새기리다."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축조하기 시작한 서울 산성.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장수에서 군왕으로 이끈 선지식
태조 죽은 후 태종은 정릉을 강제 이장하고 묘로 격하
불효 극복하고자 '건원릉'과 '개경사'라는 원찰 조성

아직 자식들끼리의 살육전을 예감하지 못한 좋은 시절이었다.

건원릉, 혁명가 이성계가 누워있는 곳이다. 능호가 유일하게 세 글자다. 스스로 눕고 싶었던 자리가 아니다. 봉분 위엔 잔디가 아닌 함흥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검암산 아래 자리 잡은 동구릉은 천하의 명당으로 손꼽힌다. 태종 때 명나라 사신이 와서 지세를 보고는 '어찌 이와 같은 하늘이 만든 땅이 있는가? 필시 인공으로 만든 산이로다'라고 할 정도다. 태조의 건원릉은 아홉 개 동구릉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태종 8년(1408), 태조가 74세로 승하했다. 태조의 수릉(살아서 미리 잡아 놓은 능, 민가의 가묘와 같은 것, 현재 영국 대사관 자리)은 강비가 묻힌 정릉이었다. 여기에 능을 쓰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3대 태종의 시대다. 부자간의 반목과 갈등이 극심했던 그들이 아닌가.

태조가 죽자마자 태종은 정릉을 현재 자리(성북구 정릉동)로 이장하고 봉분을 깎아버렸다. 강비의 능을 묘로 강등해서 강비를 후궁으로 격하시켜 버렸다. 정릉에 있던 병풍석의 석물의 일부는 다리(현 청계천 광통교)를 고치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궁궐 뒤 빈터에 방치했다. 정릉이 다시 종묘에 왕비로 올라가기까지는 25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 현종 10년(1669) 때다.

죽기 전 태조는 자신을 고향인 함흥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태종은 유언마저 무시했다. 아버지의 유언이지만 조선 개국의 시조를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함흥에 묻을 수 없다는 이유다. 그 대신 함흥에서 갈대를 뽑아 와서 봉분에 덮었다. 권력의 삼엄함에 살이 떨린다.

태조가 승하하자 태종은 급명을 내렸다. 풍수에 능한 조정대신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불효를 극복할 지상 최대의 국책사업을 벌여야겠다는 야심에 불탔다. 한양 80리 안에 최고의 명당을 찾아라. 총책임자는 왕의 풍수고문이자 영의정인 하륜이었다. 하륜은 국풍을 대동하고 왕릉 택지에 골몰했으나, 숭유배불왕조인지라 불교 풍수 법맥, 법통이 단절되어 반풍수만 남아있었다.

정작 왕릉 터를 잡은 이는 조정대신 김인귀였다. 하륜은 뛰어난 궁중건축가였던 박자청(1357~1423)을 불러 왕릉 공사를 시작했다. 그는 이 공사를 성공리에 마친 공로로 후에 공조판서(건교부장관)가 된다. 어명이 떨어지자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에서 징발한 역군 6000명이 검암산으로 동원됐다. 왕릉 조성공사는 두 달 열흘 걸렸다. 왕릉 관리기구로 개경사라는 원찰을 지었다. 태조 왕릉에서 동남방 700미터 떨어진 곳에 짓고 스님 100명을 배속시켰다(기록만 전하고 지금은 흔적도 없다).

1408년 9월 9일, 태조는 이렇게 마련된 건원릉에 묻혔다. 조선 최초의 왕릉이자 동구릉이 조성되는 시작이다. 원치 않은 곳, 그러나 최고의 명당에 묻힌 태조 이성계, 전하 행복하시옵니까?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보이차 선물용품
멋스러운 수공예 자사통에 최상의 보이차를 담았습니다



궁정보이산차(黃) – (120g)
80,000원

궁정 보이차는 1급 찻잎만을
엄선해 만든 특급 보이차로
운남 하관에서 만든 차 입니다.



궁정보이산차(紅) – (120g)
80,000원

동흥보이산차는 진년 17년의 야생교목산차로, 박하향과 함께 탕색맛이 일품인 고급차 입니다



동흥보이산차(黃)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紅) 中(300g)
16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小(200g)
120,000원



동흥보이산차(墨) 大(500g)
220,000원

차통은 자사호가 나오는 중국의 이싱(宜興)에서 작가에게 주문 · 제작한 작품입니다.
차통의 무늬는 하나하나 수작업한 수공예품입니다.
자사차통은 돌 가루를 분쇄해서 만들어 낸 것으로, 그 입자가 매우 미세해 통풍이 매우 잘되므로 차를 보관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차를 다 드신 후 다른 차 보관 통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정해년 설을 맞아 소중한분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 수입원 : ㈜홍다원

■ 주문전화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단청, 탱화, 불상, 개금
탱 화 사



▮지장보살

불사상담



▮신중탱화

▮02)918-4077/011-702-4077
화공 朴商洙 합장
서울 성북구 정릉3동 684-36

대원 문재현 선사 역저/저서



7불과 역대 조사의 말씀이 1,700여 공안으로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454칙의 공안과 이에 대한 여러 선사님들의 법문으로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명안종사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원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출간)
- 영원한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 FAX 02)737-069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27471/ 국민은행 222-25-0005-381 (입금자: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 1Box(9×4.4) 8만원**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영어도 배우고 해외 포교에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스님)
경남 불교대학 세원사
055)221-7730
016-428-6665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경전 · 명리 주역
학인무료강좌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51)557-6682(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눈 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빠짝빠짝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굳일문화 (02)2631-2205,1305

범천명리강의실

사주(일진법)	3월 5일(월) 낮2~5시 첫강의
기문둔갑	3월 6일(화) 낮2~5시 첫강의
사주(용신)	3월 7일(수) 낮2~5시 첫강의
육 효	3월 9일(금) 낮2~5시 첫강의

* 첫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389-6597(연신내)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빙의 전생 영가 치유비법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아넌)

비 법 전 수
심령치유, 빙의 퇴치, 구병시식
영가천도, 영혼결혼
www.JIJANG.999.com
www.JIJANG.sw.com
부처골 지장선원 혜봉스님 합장
054)383-8553
011-9585-4908

가족같이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018-546-2377

청정한 나반도량 입니다. 천일 기도 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청정한 남해바다 비경이 함께하는 수행도량에서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0-2511-1188

문화재 불교전통 범음 범패를 배우실 학인스님을 모십니다
(천수바라, 작법, 나비춤, 상용염불)
▷충남아산
011-850-0176

가족같이 지낼 부전스님, 비구니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6-266-487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241-2284

불심 깊은 처사님 모십니다
▷45~55세
(보시금 60만원)
011-738-0338

신심있는 종무원 (PC가능자 및 숙식가능하신분)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324-5103

부전스님 필요하신 사찰 연락바랍니다
(비구스님)
010-9188-8544

조계종 송광사 광주 포교당 원각사 부전스님 구함
(상담 후 결정)
010-4720-8488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해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사찰과 포교당 운영하는 보살님이나 비구니스님께 사주역학을 무료로 전수해 드립니다
010-5574-566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조계종 천년고찰)
054)533-347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전후)
조계종사찰
010-5255-0385

불사하실분
고통에 시달린 몸과마음을 삼보전에 맡기시고 남은여생 마음편히 살아가실 보살님인연바람
018-406-3073

천년고찰 수타사가 있는 강원도 홍천의 공작산자락공작이 알을 품는 품는 명당자리 2000평에 불사를 할수 있는 능력있는 비구, 비구니 스님은 연락바랍니다.
의식을 잘하시고 오래도록 함께 하실 비구니 기도스님도 원합니다
033)435-8988

대구 도심 불교대학에서 부전(학감)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비구니승려로서 면접(상담)후 결정하겠습니다
053)754-4962/010-3153-9416

氣중국기공훈련반
중화양생익지공
모든 중생제도 최고의 지도자 양성
천수, 천안, 팔만사천 법문 인체속에있다.
경락주천, 소주천, 대주천, 단도주천, 천, 지, 인 완성지도함
전화 : 전남 순천 061)741-3053, 016-632-0345
전남 광주 062)376-3053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운세를 바뀌게 하는 게 28숙기도이며 누구나 이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노인전문요양병원 스님 및 불자모심
최고시설을 갖춘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설 무량수전(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스님 및 불자를 모십니다.(완전무료)
◆ 대상 :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중증의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인 노인과 스님
◆ 문의 : 053)471-0991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행자모집 (총무스님) 문의 : 011-9852-0075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촛불잘밝히는방법 ★ 장사(사업) 잘하는방법 결혼인연
행복을 찾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왕따 소외감 비만 스트레스 악몽 변비 알콜중독 부부갈등 난폭한성격 원한관계 우울증 심근경색 코고는사람
불공 생일 이사 개업 묘지이장 방생 입학 시험합격 기타
업장소멸
해석 알고 싶은분 능엄신주 액자 있음 테이프 활용

우리말대불정 **천수경 능엄신주 지장경**
직장인을 위한기도 ★ 가족이함께기도
소년 · 소녀가장 독거노인돕기 · 남을위한기도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자녀 탈선 예방

영가천도 · 삼재 소멸 · 업장 소멸
대학입시기도
사법 · 행정 · 취업

물어보세요 011-817-5496, 010-7377-9446, 019-434-0878, 017-520-7546, 010-2331-0354, 016-787-3977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철야기도 100일 기도 서울 · 부산 대구 · 마산

고차원세계의 과학 - 그리고 레이키 -

1.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박희준 회장이 새로이 개설한 홈페이지「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혹은「www.spiritualism.co.kr」의 회원이 되시면 고차원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2. 동서양식 레이키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5만원
단체교육은 매월 1회 토,일요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개인교육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키는 에너지 요법 즉 氣치료법의 총아입니다.
레이키는 교육만 받으면 그날부터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저(박희준)는 1997년 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키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3. 카루나 레이키
교육비 30만원, 교육기간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파 에너지를 환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 박희준 회장 약력
20여년간 건강분야, 불교분야, 정신세계분야의 저술가, 번역가로 활동하여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Spiritualism, 윤회전생, 초능력 문제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끝에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www.spiritualism.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신중참회 지장기도 도량
불가사의

◆ 낙태로 인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 병명없는 고통은 문제가 있습니다.
◆ 천도는 마음에 따라 기도성취가 다릅니다.
◆ 구병시식은 중요한 기도입니다.
◆ 참회기도는 모든 일이 가능케 합니다.

해원사 매월 기도일정
● 매월 둘째주 토요일 밤 9시 – 새벽 4시까지(철야기도)
● 매주 토요일 오후2시 경전강좌 (법화경,유식학)
● 매월 초하루, 18일(지장기도) 법회
● 신중참회기도(360일), 100일 기도정진(다라니)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해원사 031)736-3734
네이버 홈페이지 : www.haewonsa.or.kr
야후, 다음 검색창에 해원사 치세요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7. 3. 5 (월 · 화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합시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 ● 위치: 경남 ● 위치: 충북
● 법당: 30평 ● 법당: 30평 ● 법당: 20평
● 요사: 60평 ● 요사: 50평 ● 요사: 30평
● 부지: 700평 ● 부지: 700평 ● 부지: 280평
● 가액: 10억 ● 가액: 3억 7천만원 ● 가액: 4억 2천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김포 신도시
● 건물: 4층에 2층 50평
삼존불, 후불, 신중, 감로, 원목불단
법당시설 특급완벽, 즉시 법회가능
방2, 사무실, 주방, 욕실, 화장실
● 가액: 보증금3천만원
월세 30만원(조정가능)
시설비: 답사후 가격절충
● 포교에 원력을 갖고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011-763-1080

포교원 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 시내
● 평수: 40평(법당, 방2, 공양간)
● 2층건물중 2층(옥상 단독사용)
● 상가아파트지역, 원불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1-258-1147

사 찰 안 내
● 위치: 순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243평
● 건물 25평, 요사채 20평
● 가액: 2억 5천만원(절충가능)
주차가능 , 꼭 하실분 전화요망
스님건강관계로 급 양도코져함
017-875-671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변
● 대지 125평, 법당 30평
● 옥불, 삼존불
● 1층 단독 요사채 30평
사무실 10평, 방3개
● 가액 : 3억 9천, 절충가능
(은행융자6천5백)
017-232-3389

사 찰 안 내
● 위치:천안근교 ● 위치:서울
● 부지:140평 ● 부지:95평
● 법당:12평 ● 법당:24평
● 요사:16평 ● 요사:30평
● 가액:5천5백 ● 가액:6억5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안내
● 위치:창원시 중앙동 부근
도심속의 상업지역
● 포교 최적지, 10층중에 2층
● 평수:72평
● 가액:1억5천만원
011-307-4223

사찰안내
● 위치 : 진주시와 하동군
경계지점
● 평수 : 사찰소유 250평
● 기타사용가능 토지
약 5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다실 3평
● 가액 : 1억5천만원
010-9669-558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수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55)934-1719
011-9571-1710

천하제일 명당 그림같은 대 도량처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속에 연화봉들이
즐비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시며
어우러진 노승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대구공항 10분, 갓바위 가는 길목
● 755평 급매 6억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남 거창 ● 사찰부지: 유명산 자락 최고풍광요지 , 계곡있음(연꽃지형형태)
● 종교시설부지 겸 주택부지도 허가가능
● 사찰부지 관리지역 : 전체평수 4390평, 대지 2000평
● 허가진행 중 사찰건립계획 요사 겸 주택계획 진행 중 현재 토목설계 1000평 허가 득
● 법당 50평(목조), 요사 30평(목조), 화장실 10평
● 지금 현재 유실수(밤나무, 감나무) 주목군락 형성, 주택1동, 창고 1동
● 촌집 전원주택(텃밭 가능) 목조기와 주거가능
● 대지 약 100평, 건평 약 15평, 창고 약 10평, 화장실(재래식), 마을지하수 청정 1급수
● 부처님 전 기도후 점지 된 땅 ● 양도가액:2억 9천만원
011-741-3415 / 010-6283-979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 평수 : 2,3층 각 30평
● 2층 - 요사, 큰방, 사무실,
부엌, 작은방.
3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지장단, 산신각, 각불탱화.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167-1774
032)662-1774

사찰(급)안내
● 위치:대구시 동구 신기동
(구 반야월역 앞)
● 대지:80평
● 건물:요사채,스님방,
공양간 (촌집개조)
법당 8평, 삼존불, 주차시설완비,
● 년 사글세 100만원
시설비 2000만원(보증금없음)
053)962-7362
011-506-3899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6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 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1-595-7878

사 찰 안 내
〈부 지〉
● 위치:삼랑진역 10분거리
● 종교용지 1540평
● 논 550평
● 법당 15평
● 요사채 20+20평
● 토목공사 완료
● 정남향 좌우청용백호양호
● 매매가 3억원
● 위치:부산 일광 바닷가
● 평수:1000평
● 가액:평당75만원
● 달음산 자락
● 1000평 평당35만원
● 정남향 양지바른곳
● 바다전망이 좋은터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량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1700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포교당안내
● 위치: 동두천
땅 500평(산)
● 법당 50평,요사 50평
● 보증금 3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
019-477-6674

사찰안내
● 위치: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차로 2~3분 거리
● 법당 30평, 요사채30평, 10평
조경완료
● 바로 앞 큰 계곡이 있어 경치수려
● 심야전기 지은지 2년
● 가액: 3억 (절충가)
016-274-3170

암자임대안내
● 경기 포천 대진대학근교
● 대지 200평
● 임법당 50평(방4)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처음 2년 월세없음)
시설완비
010-5575-3900

토굴안내
● 위치:경남 거창
● 전원주택(조립식)
거창시내 8분
● 대지 96평 건평25평
방2,거실,욕실,부엌,다용도실
● 공기좋고 조용함
토굴 휴양 적합
● 가액:2천8백
010-9705-992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시내
● 2층 법당, 삼존불
방2,주방1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1-540-3313

미륵사 절 안내
● 위치 : 이천시 갈산동 76-1번지(이천 법원 옆)
● 대지 513평, 도로 30평, 법당 25평
● 특징 : 설봉호텔, 미란다호텔 등으로
둘러싸인 이천의 요지, 영험한 고려시대
미륵 돌부처님 전장 4.7m 향토유적 지정
● 가액 : 7억원
연락처 : 031)638-6880
010)5600-6880/017)212-6880

오래된 암자 구합니다
관리 보수하면서
부처님 모시겠습니다
50대 비구승입니다
● 경북, 경남 지역 원함
010-9828-5595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 평수 : 50평
● 4층 옥탑방, 옥상사용가능
● 법당1 방1 공양간
● 보증금 2000만원
월70만원
중간세 가능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010-2223-580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함안시 가야읍
● 대지 270평
● 건평 60평
● 잔디마당, 전통 목조건물
● 전세 5천만원(매매가능)
055)973-0829
011-686-6614

포교당 무료 드림
● 위치:대구 서구청역 KT건너편
● 법당만 30평 그외 10평(방3개)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본인은 (오래된 작은사찰)을
구입한 관계로 권리금 없이
선착순 무료로 포교당 드림
010-2606-1299

대찰 최적가람지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장천면
● 임야: 3만 8천평
● 대구에서 30분거리 구미
시내에서 20분거리
● 부처님께 보시하는 심정으로
이 산을 내놓습니다
011-501-1935

임법당안내
● 위치: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시장 입구)
● 4층건물의 3,4층 (전체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즉시 법회 가능, 시설일체 양도
02)400-3833
016-9220-5037

포교당안내 (저렴한포교당)
● 위치 : 부산 감전시장
● 5층중 2층 약 50평
● 법당:아미타3존불 및 소불1000불
● 가액:상담 후 결정(절충가능)
● 사정상 반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보시함
051)311-3340
010-8116-339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동
허심청 밑
● 평수 : 27평
● 부엌2개 거실1 화장실1
● 가액:1천만원 월2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철학 무속인 환영
010-3551-1482

오래된 작은 사찰 구함
법당은 작아도 요사채 넓은곳
계속커 나갈수 있는 사찰
텃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010-2606-1299

토굴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90평은
텃밭으로 사용중)
● 방4개, 후원, 창고, 화장실
● 가액 4,000만원(가격절충가능)
010-6401-4939
010-5631-843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33번국도에서 50m,
의령신반에서 2Km)
● 부지 : 대지400평 건물 법당
(15평 목조기와)
요사채 신축 33평 (평당300만원소요)
조경공사 2천만원 들
● 가액 : 2억 2천 (설정1억 할수 있음)
● 운영 하실스님있으면 상담가능 (용암사)
011-9329-4241
011-9506-6612

사찰안내
● 위치: 동자동 (서울역 부근)
● 아미타, 지장, 약사, 관음
● 보증금 5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살림가능
● 법회즉시가능
02)718-0324
02)718-032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청
● 5층건물의 2층
● 원불50불, 관세음보살님
50불 모신지 한달 되었음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천만원(집기일체)
010-8675-5858

명당터를 보입니다
● 면적 : 13350평(임) 西向
● 위치 : 경남 고성 IC인접(대전-통영 고속도로)
● 형태 : 陰處로 나무 숲이 꼭대기까지 좋음
● 용도 : 관리지역인 만큼 길, 집등 20%까지 사용
● 기대 : 나뭇잎처럼 생긴 만큼 비구니 스님이나
통큰 여자분께서 잘 활용 했으면 좋겠음
● 가격 : 평당 2만원 이상이나 절충하겠음
● 길은 아직 미비나 290평 사면 해결(坪 10만원 入口)
간벌함으로 지금 재목 선별해서 사용가능
연락처 010-2245-4862

불교의식 (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 수림사에서는 실습을 통하여 불교의식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지도합니다.(전문으로 의식하실 분)
◆ 포교원 및 법사로서 활동하실 분들 교리와 의식을 갖추어 왕성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 기초과정 :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
◆ 시식과정 : 49재 및 천도재 의식.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 교육방법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접수일시 : 수시접수
◆ 개 강 일 : 2007년 3월 6일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수림사 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 011-9769-8868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고민 있는데요?

상담전화 이용하려면?

입시문제, 이성문제, 가정폭력, 고부갈등, 노후걱정…. 초등학생부터 칠순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민 한두 가지쯤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위 사람에게 털어놓기는 부담스럽고, 혼자 짊어지고 가자니 힘든 문제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화상담. 하지만 전문상담소의 경우 이웃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신앙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터놓고 상담하기엔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불교계 상담전화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긴급·상담전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 학업·이성 고민되는 청소년

청소년, 사이버 상담 큰 비중

입시와 진로, 이성문제 등으로 가장 갈등이 많은 시기인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청소년기에는 고민거리도 다양하고 고민의 정도도 부모들이 아는 것 보다 훨씬 더 깊은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청소년 고민 상담전화 1388(지역번호 없음)에는 한 달에 많게는 1만 건, 일반적으로도 6000~7000건 정도의 전화가 걸려온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적고민부터 친구문제, 이성문제, 부모와의 갈등, 인터넷 중독 등 고민도 가양각색이다.

전화보다는 문자, 편지보다는 이메일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상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청소년상담원(www.kyci.or.kr)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실시되는 사이버상담은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 중 98.4% 인 72만8110건에 달했다. 인터넷 상담의 경우 공개상담과 비밀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정신문화복지재단(이사장 도각)이 운영하고 있는 마음의전화(02-738-1275)도 있다. 마음의전화가 일반 청소년 상담전화와 다른 점은 선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 심리 상담 양성과정을 거친 상담원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인연사상에 기반을 둔 상담과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이성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성상담 사이트도 필요하다. 불교상담개발원 산하 청소년 사이버 성상담 사이트 '아하! 섹스(www.ahsex.org)'의 경우 부모에게 묻기 힘든 성 관련 상담을 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야 할 성 지식이나 상담사례 등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부부관계·종교문제로 걱정인 부부

24시간 운영 내방 상담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 "나 하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할 텐데." 이런 이유로 부부간 폭력을 참고 사는 주부라면 여성 긴급전화 1366을 이용해보자. 1366은 위급상황에 놓인 여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담전화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담에서부터 긴급구조,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상담전화로는 '자비의전화'를 들 수 있다. 가정·부부·종교·인생·사회문제를 비롯해 정신건강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24시간 상담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전화(02-737-7374~6)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사이버상담 자비24(www.jabi24.org)를 이용하면 된다. 좀 더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를 통해 전문가와 상담약속을 잡고,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상담실로 내방해 1시간가량 상담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부설 행복한가정상담소(02-738-5586) 역시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전화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부간 다툼이나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남양주 백천사 내의 '남양주시 가정폭력상담소(031-577-0020)도 불자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가정 및 아동폭력 등을 내용으로 24시간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하고 있다.

신행이나 종교문제, 혹은 가정사로 고민을 하는 불자들이라면 안국선원, 불광사, 도선사 등에 마련된 상담전화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이 밖에 아동학대(1391)나 위기가정(1688-1004) 등의 상담전화를 비롯해 성매매피해여성은 117, 법률구조상담은 132, 아동이나 노인학대신고는 129로 긴급 신고전화를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노후생활이 걱정인 어르신

법률에서 경제적 문제까지

늙고 병들고 경제력도 없는데 자식들에게 마저 업신여김을 당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르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곳이 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그것이다. 복지관 상담전화는 비슷한 연령대의 상담원들이 상담을 맡고 있어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우울증·강박증·치매 등 정신장애에 관한 심리 상담이나 민사·형사 등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가정문제나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상담도 이뤄지고 있다.

성북노인복지관은 2005년 '행복한 노후성 상담센터(www.sbnoin.or.kr)'를 통해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성 공개강좌'와 '실버미팅' 등도 개최해 어르신들의 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02)929-7950 서초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2월 23일 오후 3시부터 '노년의 행복한 나 만들기'를 주제로 8회에 걸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2)578-1515

서울노인복지센터(02-739-9501)와 광진노인종합관(02-466-6242), 마포노인주간보호센터(02-365-3677), 금정시니어클럽(051-516-3045), 서호노인복지회관(031-231-0911), 서원노인복지회관(063-227-7483)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구인 구직 상담을 돕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연화원 케어복지·호스피스 교육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은 3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1시~오후 6시 '케어복지사 및 호스피스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사회복지개론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론, 불교와 사회복지, 유서작성 및 임사체험 등 이론과 실기가 함께 이뤄진다. 청각장애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수화교육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여성발전기금으로부터 후원 받아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60명 모집. (02)2202-5831

보이차 전문점
정해년 고객감사 이벤트
3만원이상 구매시
서영보이에서 자사돼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200개 한정)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24. 민간(民間)의 음차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제나라 경공(景公)때 안자가 말한 것으로 지역의 풍속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품성을 비유한 말이다.

중국의 차 문화는 보이는 현상과 민중사상의 결합을 재현하고 문인들의 다도 정신을 함축했다. 일반인은 처음에 다예(茶藝)가 너무 복잡하고, 여유가 없어 배우지 못하고 갈증 해소로 마시는 것에 불과했으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끊임없는 음차(飮茶) 방식의 창조로 인해 각 지방 마다 특색있는 다예를 만들어 흥미를 일으켰다. 청말 민국 초에 이르러 민간의 음차도 흥미와 기예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질박하고 간결하여 일반 농민과 근로자들에게 고결한 정신과 덕을 함양케 했다. 이것은 민간의 일상 관념과 생활습속(生活習俗)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오늘날까지도 대만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공부차(工夫茶)는 복건의 산간지역과 광동의 조산(潮汕)에서 널리 유행된 음차 방식이다. 다구에서 물, 찻잎, 우리는 것, 마시는 것 등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많은 학습(學習)을 통하여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진 행다(行茶)로, 규칙을 중요시 하여 정교(精巧)하기는 했지만 탈속(脫俗)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가게나 골목길 등 공간이 주어지면 차를 우린다. 심지어 농민들이 일을 하기위해 산에 갈 때도 과자와 다구(茶具)를 어깨에 지고, 휴식할 때는 다구를 내려놓고 물을 끓이고 차를 마신다. 집에서도 한가한 시간에 공부차를 우리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산간 지역의 농민은 부유하지 않지만 차를 마시기 위해 산천수를 사고, 비싸지 않은 다구를 갖추었다. 일반인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런 공부차를 마시면서 입에 향기 가득 담고 고생스러운 생활을 잊어버린다. 음차를 통하여 정신과 물질, 형식과 내용의 통일을 이룬 것이다.

중국은 차로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보편적인 습속(習俗)이다. 각 지방의 경차(敬茶) 방식과 습관은 다르다. 북방의 부잣집은 손님이 집에 오면 먼저 하인이나 자녀가 차를 올린다. 이것은 단지 예절을 표하는 것으로 마시지 않아도 된다. 다음에 나온 차는 아주 세밀하게 맛보며, 주인과 손님의 대화가 아주 흥미진진해지면 차는 흥을 돋워 마음을 통하게 하여 다도의 감정을 교유하는 시간으로 친밀한 관계에 이르게 된다.

강남에서는 손님과 친구를 초대하여 좋은 일과 재물이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로 제일 좋은 차에 기타 식품을 넣어 정을 표현한다. 호남에서는 손님이 오면 반드시 차를 앞에 올리고 차 탕 중에 찻잎 외에 볶은 콩과 생강편을 넣는다. 차를 마실 때 반드시 콩을 씹고 깨와 찻잎을 씹는다. 평소에 음차를 많이 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도 손님이 오면 반드시 꼭 한 잔의 차를 우려 대접한다. 항주에서는 매번 집집마다 신차를 끓여서 각양각색의 씨를 배합하여 친척과 친구에게 준다.

민간의 음차는 유가, 불가, 도가의 계통적인 차 문화의 체계와 같지 않고 표현 형식도 규범적이지 않아 상층(上層)의 차 문화처럼 열정적이며 고상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지역의 예의나 사상이 아주 선명한 것 외에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음차(飮茶)의 정신을 일상적인 교유의 매개체로 이용하였다. 민간의 차 문화는 현실생활의 반영일 뿐 아니라 특수한 형식으로 일상에서 벗어나는 정화(淨化)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청말 민간의 음차 간결해지면서 널리 퍼져
지역적 사상은 선명, 상층 차문화와는 차별


공부 차의 다구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그림1 : <반본환원(返本還源,근본으로 돌아가라)>, 전남 조계산 송광사 승보전 심우도 벽화

근원으로 돌아가라



불화 속의 명장면 (22)

송광사 심우도(尋牛圖) 벽화 '반본환원(返本還源)

<입전수수(入廛垂手, 다시 세상 속으로)> 송광사 심우도 벽화

<기우귀가(騎牛歸家,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德力富吉郎 작, 일본 교토 법륜사소장

곽암 선사의 '십우도송'서 유래, 선종과 함께 유행
소는 욕망을 지닌 자아, 목동은 이성적 자아 상징
타유인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자유인 표현

계획없이 찾아간 전남 조계산 송광사. 승보전에 그려진 심우도 벽화를 따라 한발 한발 옮겨가다가 멈추어 서게 된 것은 '반본환원(返本還源, 근본으로 돌아가라)'의 장면이었습니다.(그림1)

返本還源已費功 근원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그간 공력이 헛된 것임을

爭如直下若盲聾 차라리 바로 눈멀고 귀먹은 만 못하니

庵中不見庵前物 암자에 앉아 암자 앞 풍경을 보지 않아도

水自茫茫花自紅 물은 저절로 흐르고 꽃은 저절로 붉은 것을

근원으로 돌아가라니? 연속되는 시리즈 벽화 장면의 주된 등장물인 목동과 소가 사라져버리고, 문득 물 흐르고 꽃 피는 자연의 한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이란 바로 '자연'을 말하는 가 봅니다. 저절로 흐르는 자연, 청정무구 참 자아(眞我 또는 自性)의 상태. 그렇다면 앞 장면의 목동과 소의 숨바꼭질, 팽팽한 줄다리기, 길들이는 고군분투는 모두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인위적 또는 인공적 행위가 되는군요. '최상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上善如水)'라는 노자의 문구가 떠오릅니다.

무언가 성취하려는 욕심에 정신없이 아등바등 일에 파묻혀 쫓기던 지난 6년간의 해외 유학생활 중, 어느 날 문득 제겐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력은 쌓이고 이력서를 장식할 한 줄 한 줄들이 늘어 삶은 더 화려하게 포장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거창한 것, 좀 더 크게 보이는 것을 향해 재촉하여 나아갈수록 거꾸로 마음은 이상하게도 거칠어지고 행복감은 반비례했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의 '산중(山中)'이라는 시의 한 구절 '약초 캐다 어느새 길을 잃었지, 천개의 봉우리 낙엽 덮인 속…'에서처럼, 정신없이 약초 캐는 것에 몰두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아득히 깊은 첩첩 산중, 결국 망연자실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돌아갈 길을 잃은 마당에 손에 가득 움켜쥔 약초는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마도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외적 속세적 가치만 따라 움직였던 거짓 자아에 부림을 당해, 진정한 자아(眞我)와 점점 멀어지게 되어버렸나 봅니다.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라는 뜻을 가진 '심우도송(尋牛圖頌)'의 본래 명칭은 '소를 길들인다'라는 의미의 '목우도송(牧牛圖頌)'입니다. 열 단계로 나누어 그려졌기에 '십우도송(十牛圖頌)'이라고도 불립니다. 참선 수행자의 수행단계를 잃어버린 소를 찾아 길들여 돌아오는 과정에 비유해 그림(圖)과 시(頌)로 도해한 이러한 저작은, 선종의 유행과 더불어 다양한 버전이 유행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중국 북송대 청거호승(淸居皓昇) 선사의 '목우도송12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보명(普明) 선사의 '목우10장' 유백(惟白) 선사의 '목우8장' 등 많은 선사들이 이 형식을 빌어 참선의 수행단계를 알기 쉽게 제시하였는데, 본 송광사 벽화에 그려진 그림과 게송은 남송 초기의 곽암(廓庵) 선사의 '십우도송(十牛圖頌)'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곽암 선사는 <벽암록>의 찬술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원오극근(圜悟克勤)과 그의 동문인 대수원정(大隨元淨)의 법통을 이은 제자입니다. 이 십우도는 <벽암록>이 집필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만들어진 것으로, 선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에게 일종의 선수행 가이드 역할을 하였답니다.

이 십우도송의 열 단계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심우(尋牛 소를 찾다):목동이 고삐만 든 채 달아난 소를 찾아 나서는 초발심(初發心)의 단계. 무언가 찾아야겠다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 이것저것 도모해보지만 갈피를 잡을 수 없고 힘은 다하고 다만 막막하기만 하다.→②견적(見跡 소 발자국을 발견하다):소의 자취를 발견한 목동, 견성(見性)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단계. 무언가 희망이 어렴풋이 보이고 방향이 잡히는 듯하다.→③견우(見牛 소를 보다):목동이 멀리 있는 소를 본다, 피나는 노력 끝에 입문의 단계에 들어서다. 이젠 세상이 내 편인 듯 아름다워 보인다.→④득우(得牛 소를 붙잡다):소를 잡긴 잡았으나 여간 다루기 힘든 것이 아니다.(그림2) 힘겨운 자아와의 고군분투. 성공한 듯 치기심에 득의양양하다가도 다시 나락이다.→⑤목우(牧牛 소를 길들이다):채찍과 고삐로 단단히 다스리자, 거친 검은 소는 순한 흰 소로 변해간다. 검은 먹구름이 걷히고 청정한 하얀 마음이 자리 잡는다. 굳은 의지와 지루한 인내가 필요한 단계, 계속 버티는 것만이 살길이다.→⑥기우귀가(騎牛歸家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완전히 길들인 소를 타고 한적하게 피리를 불며 돌아온다.(그림4) 긴장과 고투는 사라지고 고요한 평정심이 찾아와 피리소리 또한 깊고 은은하다. ⑦망우존인(忘牛存人 소는 간 데 없고 사람만 한가롭다):모든 의식적 자아 또는 외부 사물에 초연하게 된다.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도 기를 쓰고 집착했던가. ⑧인우구망(人牛俱忘 사람도 소도 모두 없다):자아 역시 잃어버리는 단계, 장자에서 말하는 '좌망(坐忘)'의 경지이다. 남곽자기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듯 멍하니 앉아 있으니, 제자 안성자유가 묻는다. '몸은 마른 나무 같고 마음도 죽은 재와 같습니다. 지금의 스승님은 이전에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吾喪我).' 자아라고 착각했던 거짓 자아(소에 비유)에서 소자아(小自我)를 찾고 나아가 더 큰 대자아(大自我)로, 큰 깨달음(大悟)의 경지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즉, '마침내 나는 없다(究竟無我)' <금강경 제17> ⑨반본환원(返本還源 근원으로 돌아가다):'하늘의 퉁소 소리<장자:제물론>'가 들려온다. 대자연의 호흡소리가 들리고 우주의 삼라만상이 눈앞에서 물결친다. ⑩입전수수(入廛垂手 다시 세상 속으로):저잣거리로 나가 세상에 손을 내민다.(그림3) 이제 사람을 사랑(慈悲心, 大慈心)하는 것만 남았다. 제대로 돌아오기 위한, 귀가를 위한 출가를 했다.

여기에서 뛰쳐나온 소는 욕망을 가진 주체로서의 자아를 상징합니다. 이를 인식하고 컨트롤하려는 목동은 이성적 자아이겠지요. 이 십우도는, 나에 의해 또는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자아, 육체적 욕망 또는 타인의 가치에 부림을 당하는 타유인(他由人)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자유인(自由人)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여정은 석가모니의 출가와 수행, 다시 중생 교화를 위한 위대한 귀가의 순서를 고스란히 밟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오온(五蘊)을 가진 육체적 존재이자 법신을 지향하는 정신을 동시에 가진 어쩔 수 없는 모순적 존재입니다. 바로 이 양자, 욕망을 가진 현세적 자아와 신을 지향하는 진정한 자아와의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인생'이라고 어느 현자는 말했지요.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역학 개인지도

◆ 한자를 모르고, 기초가 없어도 2개월만 배우면,
◆ 누구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만의 비법을 강의합니다.
◆ 철저하게 실전위주의 강의로, 가장 짧은 시간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며,
◆ 작명, 풍수지리, 관상학도 기본적으로 배움.
◆ 망설이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격 : 나이 및 학력 제한없음
▷개강일시 : 2007년 3월 2일 - 4월 28일(매주 목, 금요일, 현재 강의중)
◆ 단체 출장 강의도 함(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 인연있는 제자 한분을 기다립니다(남 · 여 구분없음)
◆ 수강료 : 백오십만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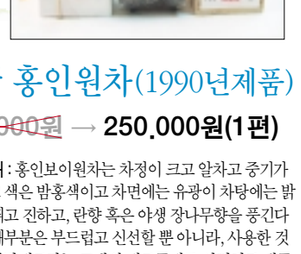
정해년 설맞이 추천선물용품 기획전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추천하는 불교문화상품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선물용품

황인산차(黃印散茶)
50,000원(100g)
· 원산지: 맹해
· 진기: 1990년





갑급 홍인원차(1990년제품)
~~320,000원~~ → 250,000원(1편)
차의 소개 : 홍인보이원차는 차정이 크고 알차고 중기가 포만하고 색은 밤홍색이고 차면에는 유광이 차탕에는 밝은빛을 띄고 진하고, 란향 혹은 야생 장나무향을 풍긴다 잎의 아래부분은 부드럽고 신선할 뿐 아니라, 사용한 것은 구식압막제조라는 고대의 제조공예로 어떤것도 배곱원형의 병차형태를 하고 있다

7532청병(7532青餠)
~~700,000원~~ → 350,000원(1편)
· 원산지: 맹해
차의 소개 : 맹해의 어린잎으로 건창보관이 잘되어 기세가 비범하며 우아하고 내렴하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극유화성을 지닌 아름다운 차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탕색은 금황색이고 맛은 진하며 향기는 천연적인 것과 같아 입에 넣으면 부드러우면서 매끈하다.



■수입원 : 서영보이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과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대행스님

그냥 꾸준히 뚜벅뚜벅 물 흐르듯이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 이거를 잘 음미해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때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죠, 이 안에서. 몸이 피곤하면 '아휴!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해?' 하고 알게 해주죠. 또 피곤하면 '아! 조금 쉬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즐겁게 해줍니까? 그렇게 '내가 피곤하지!' 그러면 벌써 알게끔 해서, '좀 쉬어야지!' 하고, 쉬게끔 마음이 들게 하고, '아휴, 좀 개운한데!' 하게끔 만들고, 그러고서 또 피곤하면 '목욕 좀 해야지!' 요런 마음이 들게 하고. 일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건건이 자기를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입니다. 참자기 주인공인데 이름을 주인공이라고 붙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자연의 섭리로서 그렇다면, 누구한테나 마음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내는 건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응! 마음은 하나야. 그러나 마음내는 거는 수억, 우주 삼라대천세계에 꽉 찰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뱀도 내가 될 수 있고, 개구리도 내가 될 수 있고, 새도 내가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내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하다, 위대치 않다'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순간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될까 하는 생각에서, '모든 걸 놔라, 놔라' 이럽니다. 놓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납니다. 사는 자체가 다 바로 그놈이 하는 거라고 믿고 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놈임을 믿지 않고 그놈한테 다 맡겨 놓질 않는다면 그놈은 절대 나오질 않아. 회사에서도 어느 믿을 만한 직원한테다 딱 맡기면 도둑질도 못해,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잘해요. 그런데 맡기질 않으면 그게 참 나오려고도 안 해요. 왜? 막아져 있으니까. 제 잘났다고 턱 하니 자기가 위로 올라앉았으니, 참자기는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자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한테 머리 숙여 숭배해야 해요. 자기 조상이니까, 자기 아비라고. 겸손하게 보필하면서 자기는 믿어야 된다 이거야, 마음적으로. 그래서 믿어서 그것이 완전히 둘이 아니었을 때에, 아비가 자식이고 자식이 아비이고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아비면 그냥 아비지, 왜 아비이자 자식이고 자식이자 아비라고 그러느냐? 불이법(不二法)이 그러하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그렇지 않으면 연속해서 길이 될 수가 없거든. 즉 예를 들어서 높은 일도 있고 낮은 일도 있고 아주 하(下)의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자식이 없다면, 이건 뭐 진리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삼위일체로써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이러는 법은, 즉 말하자면 아버지가 일을 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로 돼주고, 아들이 일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로 하나가 돼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될지언정 결국 하나다 이겁니다. 뱀이 일할 때는 스님도 뱀이 돼버리고 또 스님이 일할 땐 뱀이 바로 스님이 돼버리고, 사자가 스님이 돼버리고 스님이 사자가 돼버리고, 코끼리가 사람이 돼버리고 사람이 코끼리가 돼버리고, 그게 마음은 하난데 마음이 수천수만 가지로 생각을 낼 수 있으니 그 모습조차도 바꿔지더라 이런 겁니다.

> 놓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납니다!
> 사는 자체가 다 바로
> 근본에서 하는 거라고 믿고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거듭거듭 거쳐 나오면서 모습을 바꿔가지고 나온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계발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자연의 섭리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의 이 토대가 바로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모두들 지수화풍이 허무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지수화풍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 지금 우린 꼼짝도 아니, 생겨나지도 못했죠.

지금 다른 혹성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 지구에도 그렇지만 법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구에도 망사처럼 이렇게 큰 둘레로 돼 있는 법망이 있습니다. 그 법망으로 인해서 전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바깥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다는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핏줄처럼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어디로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법망이 보이지 않는 데 법망이거든요. 조금이나마 바깥으로 표현된 것도 천체망원경으로 봤기 때문에 표현된 거지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현세에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끔 나온 것이 어찌 과학이 아니겠느냐는 얘깁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자체 속에서 분자에 의해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에 의해서 진화가 되고, 이렇게 자꾸자꾸 나투면서 우리는 지금 한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을 발하면서 활발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몸뚱이 속에 생명들은 지금 내가 저기 갔는지 여기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고 있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뱃속의 오장육부 세포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묘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도 누가 알겠느냐 하겠지만 이 뱃속의 생명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죄 알고 있으니, 우주간 법계에 다 이건 그냥 파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거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을 하더라도 '거짓 아닌 거짓을 해라.'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남을 위한 거짓이라면, 부모를 위한 거짓이라면, 자식을 위한 거짓이라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더 이것을 잘 음미해 본다면 이 보이지 않는 데에 진출하는 이런 마음은 부처님 법의 경을 읽고 또 이론으로 알고 또 물리를 안다고 해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한번 내가 집어먹을 줄 모른다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한번 집어먹을 줄 알고 남을 줄 줄 안다면, 그것은 자기 죽는 거, 이 옷 벗는 거를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자리 저 자리를 육신으로 다니며 하려면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몇 안 되고,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또는 대포를 가지고 해도 싸움이 됐지만, 지금은 안됩니다. 시대가 시대니만큼 사람도 많이 생겼을 뿐 아니라, 사람의 머리도 그만큼 깨었고, 그만큼 과학적으로 발달이 됐고, 문명으로나 모든 걸로 봐서는 지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한 술 더 떠서 공중에서 싸운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커버할 수 있고 앞장설 수 있는 대인이 되시라 이겁니다. 이파리 하나 가지고도 군사를 몇백 명이라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언짢고 귀찮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인간 살이를 어렵게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고통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주인으로부터 나를 형성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니 부와 자가 하나가 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내는 거는 수억만 가지입니다. 수억만 가지가 한마음으로 들고, 한마음에서 수억만 가지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법이고 광대무변한 자신의 보배를 자신들이 가졌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수억만 명을 만들어서, 이 우주를 덮게끔 할 수도 있어. 지금 모습 없는 모습들이 각 혹성에서도 바라고 있으니까! 모습 있는 생명들도 많지만, 모습 없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다 친구라면 무서울 게 뭐 있고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도 사람을 처음 봐서 아무것도 모를 때도 사람 마음을 거기 줬을 때에는 그 소가 '아하! 이 마음이 이러니까….' 하고 그냥 마음에 따라서 같이 알게 돼요.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길을 따라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하죠. 사람은 전체를 알고 있는데, 짐승은 부분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알고 있는 거 그것뿐이거든요.

그러니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공산주의 나라가 독재로 다스려서 이익이 뭐 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발을 한다면, 또 모든 에너지를 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만든다면, 어떤 문제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3, 4년 전 얘기일 겁니다. 나는 중공이든지 소련이든지 어디든지, 민주화로 좀 이렇게 같이, 물을 좀 갖다 섞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섞지 않는다면 살기가 희박하다는 문제입니다. 전부 계발하기도 희박하고, 또 불국토를 가져오는 것도 희박하고, 또 앞으로 연구하는 데도 큰 절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생명체들이 잘 살 수도 없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너그러워야, 썰물 밀물이 같이 혼합을 해야 살 수 있는 기대를 품을 수 있고 또 지혜가 나오고 물리가 터지고, 불국토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과학도 더 나아가서 연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원력이 아니라, 서로 둘이 아니게 교류를 맺게 하고 인연을 맺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이것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얘깁니다. 원력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나라를 죽이고, 어느 나라를 살리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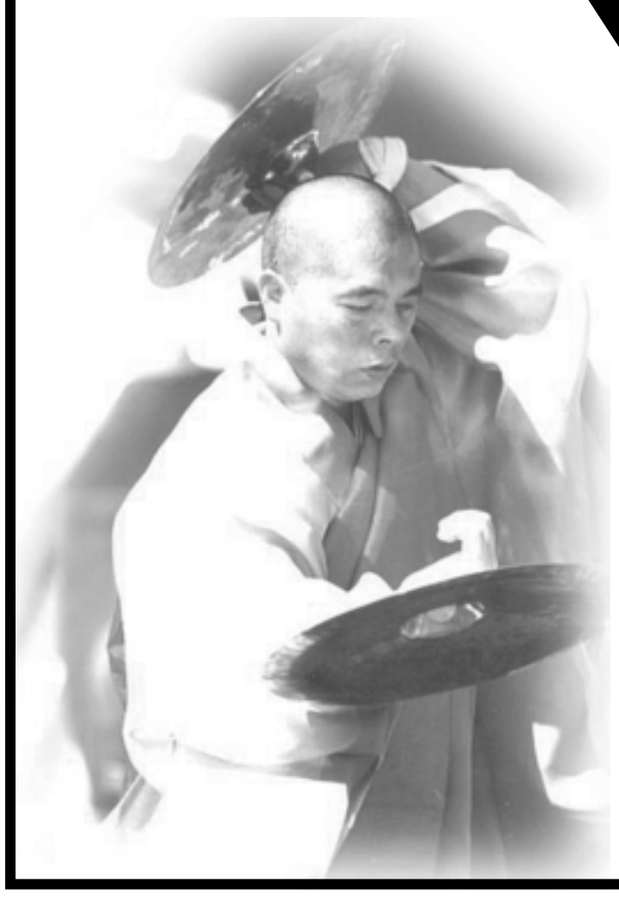
그러나 자기 앉은 자리 딱 지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자기네 집 지키지 않는 사람 여기에 한 분이나 계신 거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다니다가도 자기네 집으로 들어갑디다, 모두. 거기는 꼭 지키더군요. 어디 나가서 여관에 가 자도 내 집이 있다는 건 꼭 지키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공부, 이러한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들을 낳고 키워도 그 애가 스스로 밝은 길을 걷도록 가르칠 때, 말로 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전화통이 있고 그 애 전화통이 있는 이상, 내가 그 애 번호를 자식이라고 알고 있는 이상, 그거는 억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뿌리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다 넣어도 넣은 사이가 없이 스스로서 밝아서 스스로서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일부러 그 손을 끌고, 욕을 하고 때리고 그래서 갑니까?

각본대로 여러분 사시죠? 여러분이 그 게임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날

☞22면으로 계속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6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 · 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 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지도

2학기 작법 · 무용과정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교 수 진
일초스님 직강 / 강사 : 원경스님 · 지오스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07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 및 학사일정 설명)
- 모집인원 : 000명 (FAX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주 2회)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7년 1월 ~ 2007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교는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 한글인터넷 : 삼계종

내 마음이 아는 걸 우주법계에서 다 알고 있어!

☞21면에서 계속

수 없으니깐, 어쩔 수 없이 각본대로 자기 주어진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어진 대로 각본대로 돼 있는 거를 벗어나려면 그만한 고초가 없이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어! 이 절은 뭐 이상해." 그러죠? "뭘 놓으래? 사랑도 돈도 다 놓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미거한 소린 하지 마세요. 사랑도 돈도 다 그 속에 있는 건데 누가 하지 말라나요? 하되, 내것이 아니라 내것이다 이 소립니다. 자기게 아니라 자기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그것을 잘 아신다면 자기는 관리인으로서 시봉자로서, 자기의 시봉자로서 올바르게 함으로써, 또는 시봉자는 주인에게 '너는 차가 고장났으면 올바로 고쳐서 끌고다녀라!' 이렇게 하라 이 소립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수가 없어도 안 되고, 차가 없어도 안 되고 기름이 없어도 안 돼요. 하나라도 없어선 안 돼. 생명이 없어도 안 되고, 분별이 없어도 안 되고, 마음내는 게 없어도 안 돼. 또 마음내는 게 없어도 안 되지만, 육신이 없어도 안 돼. 그러니 세 개 중에 내가 높다고, 어떤 게 높다고 하겠습니까? 높은 게 하나도 없어. 통틀어서 그냥 일심(一心)이야. 일심이 들고 나는데, 삼세심(三世心)이 그냥 들고 나. 삼세심이 일심이요, 일심이 삼세심이라. 과거심(過去心)도 미래심(未來心)도 현재심(現在心)도 그냥 일심이야, 통틀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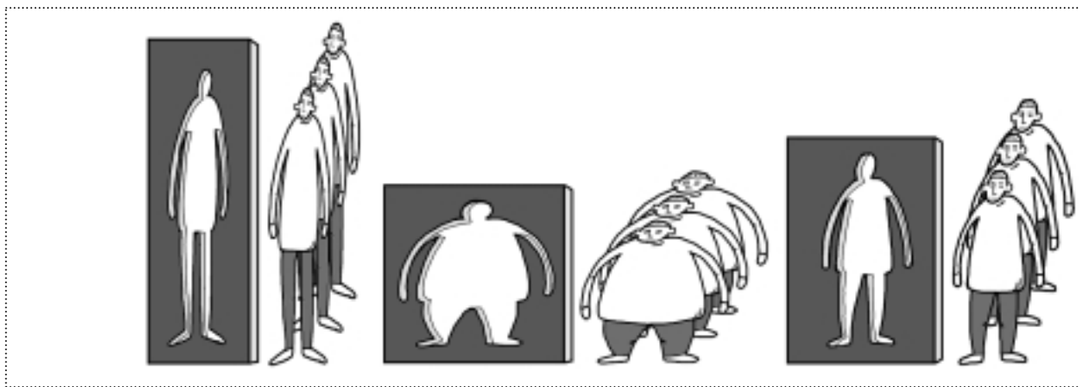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환경에 따라 가다보면 그만 흔들리고, 중심이 없고 집이 비게 돼요. 그럼 그 집에 남이 들어서서는 내 집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달마 대사가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오니깐 내 집에 누가 들어왔더라. 그래서 나는 집이 없어서 비워놓은 딴 집에 들어가서 털보가 됐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한 가지 벌어졌으면, '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했나?'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달마 대사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달마 대사로 몸이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달마 대사는 재주가 그만큼 없어서 바뀐 겁니까? 남의 집을 뺏을 줄 몰라서 뺏긴 겁니까? 그러면 그만큼 공부해가지고도 집 뺏길 정도라면, 집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그건 달마 대사 자격이 없죠, 하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를 생각해보십시오.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들었으면 한번 음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마음의 도리로, 이렇게도 이끌고 저렇게도 이끌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가난해서 아주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도리를 안다면 나물죽을 먹고도 껄껄 웃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멋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기 반찬에 잘 먹고선 그냥 흐드러지게 좋아하는 것보다 참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맛이란.

여러분이 여기 스님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 갖다놓습니다. 그러면 좋고 좀더 맛있는 거는 여러분과 같이 공양을 하고, 좀더 후진 거는, 또 후진 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후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감지덕지죠. 그래서 이것은 천차만별로 나눠주죠. '스님네가 심부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미처 나는 몰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어렵구나! 이렇게 중노릇하기가 어려운 줄은 내가 애당초에 생각을 못했구나!' 그것도 내가 생각한 것 아니겠는가, 어렵다는 것도. 그러나 어렵다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다. 왜? 내가 그건 어렵다고 생각할 게 없어. 나 하는 대로 그냥 꾸준히 그냥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니까, 저 물 흐르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마음이 아는 걸 우주법계에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지 않게 살아라 하는 얘깁니다.

남이 두렵고 남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참, 부모도 없고 불쌍한 애들, 어떤 때는 등록금도 못 내고 그럴 때는 말이죠, 참 그런 거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주었다는 거 말해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남의 체면도 있지. 그럴 때 그냥 내주면서도, 그것은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마음 편안하려고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 편안하자고 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중노릇하기 참 어렵구나!' 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빚을 내서 시주를 한다고 가져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 줄 때가 있죠. "야! 누가 빚 내가지고 오랬어!" 그러고 주면서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로워! 난 괴롭기 싫어. 이게 이자 늘어가면 내가 죽겠어. 당신이 죽겠는 것보다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난 이거 안 되겠어. 갖다 갚아. 심부름 좀 해!" 이럽니다. 내 심부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절에 와서 부처님을 친견 못하고,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그것 좀 잘 생각해보세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어떤 스님네들은 "병 고치는 게 중인가?"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건 이단이다." 그럽니다. 이단이 아니라 일단이라도 좋다 이거야. 그거는 당장 내가 아프고 내가 귀찮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일단 되기 위해서, 정법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 한 게 아니다 이거야. 내가 아픔을 겪어봤고, 내가 내 아픔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내가 부처 되기 위해서 이 공부한 게 아니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자연의 섭리야, 이건. 누가 뭐라 하면 어때요?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야, 참 아픈 것도 누가 대신 아파주지 않고요, 똥이 안 나와도 대신 똥 눠줄 사람도 없고요, 허허허. 참 피곤에 어린 마음에도, 지금처럼 나이나 먹었으면 그냥 픽 웃고 말았을 텐데…. 그때는 그냥, 입이 근지러워서, 허허허. 그러니깐 좀 모자랐죠. "아니, 우리가 변소 안에 드나드는데 부처가 변소 안에 없다고요?" 아, 요렇게 되받았지 뭡니까? 허허허. 그리고 그 스님한테도, 아유,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그때 몰라서 그랬죠. "당신에게는 반밖에는, 반절밖에는 못 하겠소." 허허, 이랬거든요. 그 왜 그랬나? 그때는 너무 삐죽하고 빳빳하고 아주 눈에 불이 펄펄 날 때니까. 그때는 그렇게 너그럽게 벼이삭이 숙여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또 무슨 표창장을 주면 "뭐 잘했다고 상장 줍니까?" 이러고, 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뭐 스님네들이 날 뭘 주느냐 이거야. 그러곤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버리는 그런 행태, 그러니깐 몹시 나빴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벼이삭이 첫번부터 익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저게 바로 내 모습이야!', '저게 바로 나야!'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해보고 그렇게 겪어보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다 스승이야, 내 밑거름이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줬지. 안 받아줬어도 거름이요, 받아줬어도 거름이에요.

어떤 한 큰스님은 너무 너그럽게 날 받아주시고 불쌍히 생각해주시고, 아주 나이 어리다고 그냥 남몰래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욕을

우리가 진화돼서 다시 모습을 바꿔가지고 나올 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당장 시한에 닥치는 일들, 그냥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일들, 어떻게 돼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갈 수 있었겠나? 박 대통령 당시에도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되려니까 그렇게 됐지!' 이러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니깐 그렇게 됐지!'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너무 남한테 해롭게 하고 그래서 열 번만 그렇게 끌려가 보세요. "그 새끼는 내 새끼 아냐! 가만 둬, 잡혀가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버립니다. 열 번을 타일렀는데도 열 번을 붙잡혀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는 건데,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더라도 중심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집이 비면 남한테 채여!

제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한번 내가 집어먹을 줄 모른다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해도 누가 대신 피곤해줄 사람도 없고, 누가 대신 울어줄 사람 없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내 아픔처럼 아프고 불쌍하게, 정말 뼈아프게 아픈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방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이럽니다. 왜? 내가 아픈 거를, 내가 빨리 어떻게 어떻게 낫게 하려고 말입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얘기 듣기만 하면 됐지 뭘 내가 더 말할 게 있습니까, 괴로운데. 그 사람은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모든 게 나 괴롭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빨리 나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뭣이 좋아서 자꾸 얘기할 맛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나.' 하고선 좀 잠시라도 이렇게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변소 안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무슨 부처가 변소 안에 있느냐고 그러더군요. 예전에 두루마기를 입고 변소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급하니까.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어찌 변소 안에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때 합니다. "저 노장은 도무지, 저 하치않은 애한테 저런다."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누룽갱이 한 조각이라도 몰래 주느라고, 세상에! 이 마음 밖에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마음! 아무리 거대하고 잘나도 그런 마음을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죽으나 사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랬던 고로 그분들은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은 앞으로 죽는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도, 사람이 진화돼서 다시 모습을 바꿔가지고 나올 뿐이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차원이 바로 내일의 차원이요, 또 내일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7년 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현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원서교부 : 수시교부 및 입학 (교재비만 부담)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줄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7년 1월 30일 부터 □ 입학일 : 3월 5일(월) 오후 2시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불자 세상보기

배 광 식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

병원감염 예방대책 없나?

병원(획득성)감염은 병원 혹은 요양기관의 치료 중에 발생한 2차 감염으로, 통상 환자가 입원 후 48시간이 지난 때 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에 감염(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 경우 감염균은 환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미생물인 경우도 있고, 병원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인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입원환자의 5~10% 정도에서 병원감염이 나타나고, 주로 뇨로감염, 수술부위감염, 기관지 혹은 폐 감염, 혈액관련 감염 등이다.

병원감염은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부터 있어왔다. 1840년대에 젬멜바이스(Semmelweis)는 의사가 산과환자를 보고 손을 잘 씻지 않은 경우 그 이후의 산과 환자의 신생아에 신생아열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불교경전에도 식사 전에 콩비누(조두, 澡豆) 또는 우시(牛屎, 당시 비누의 일종)로 손을 깨끗이 씻게 하고, 양지(楊枝)로 이를 닦는 양치질을 하도록 하였다.

1860년대에 파스퇴르가 병은 미생물이 일으킨다는 질병세균설을 주장하고, 외과의사인 리스터는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소독제인 석탄산으로 손을 씻고 수술기구를 소독하므로써, 수술 후 감염률과 사망률을 대폭 줄였다. 또한 미생물 감염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살바르산이나 설파제 등의 화학요법제를 거쳐, 1928년 플레밍(Fleming)이 곰팡이에서 추출한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등장하고, 그 이후 많은 항생제가 등장하였다.

우리들은 수많은 미생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 미생물은 유익한 경우도 있고, 해로운 경우도 있다. 인체는 선천적으로 병원균에 대항하는 많은 장치를 가지고 있다. 피부와 점막은 외부의 미생물이 인체 내부환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우주복 같은 역할을 한다. 또 백혈구 등은 염증에 관여해 일단 우주복을 뚫고 들어온 균에 대한 신속 저항군 역할을 하고, 면역체계에 의해서 장기적인 대처를 한다.

세균으로 인한 질병을 앓게 되려면, 세균의 착상, 증식, 독성이 있어야 하고, 인체의 저항성이나 면역체계를 이겨야 한다. 건강인은 감염이 잘 안 일어나고 감염이 되어도 이를 쉽게 극복한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그 중 특히 노약자나 유아, 면역억제제 복용자 등은 저항력이 약해 쉽게 감염되고,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주사, 카테터, 수술 등은 인체의 우주복을 손상시키는 술식으로 감염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타인 또는 동물의 장기이식도 감염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병원은 각종 질병 즉 병원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미생물들은 변이과정을 끊임없이 거친다.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을 강력히 억제하는 광범위 항생제를 계속 개발해도, 그를 극복하는 내성 미생물이 또 등장하고, 특히 항생제 남용시 소위 말하는 수퍼박테리아가 잘 생긴다. 현재 메티실린저항균(MRSA), 반코마이신저항균(VRE) 등의 수퍼박테리아가 있다.

병원감염은 이들 중 1/3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선 국가에서 감염관리에 관한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감염관리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각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병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요원들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병원환경의 청결, 각종 기구의 철저한 소독과 관리법 등을 숙지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항생제 과다사용국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국민, 의료진, 국가 모두 수퍼박테리아의 출현가능성을 높이는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불자의 눈

안국동 '나눔의 가게' 1호점은 언제나 붐빈다. 좁은 매장에 가득 찬 손님들을 좋은 물건 값싸게 사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나눔 운동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물건을 기증하는 사람도 있다. 나눔이 우리 사회의 생활 코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한 예다.

참여불교재가연대가 2월 8일 공식 선포한 '해피타임 캠페인 및 NGO 혁신모델 비전'은 불자라면 누구나 동참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소득의 3% 회향, 시간의 3% 회향, 명상의 3% 회향, 3인에게 권유를 골자로 하는 해피타임 캠페인은 모범적인 불자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수입의 25%를 남을 위해 써야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수입의 3%를 남을 위해 쓴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려는 의지와 생활화의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해피타임 캠페인이 권장하는 수익 3% 회향 운동의 성공여부는 불자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3% 나눔 '해피타임' 캠페인 정토 건설 위한 불자의 발원

시간과 명상의 3%를 회향하자는 제안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조차도 "내 시간은 없다"고 외치며 사는 현대인에게 시간의 3%를 나누자는 것은 엉뚱한 호소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나 자신의 여유를 남과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넉넉한 공덕이 되겠는가를.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회장은 취임식에서 "이 캠페인은 사회지도층이 먼저 앞장서 자기 시간과 소득의 3%를 이웃과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하루 3%의 시간을 자기 성찰과 이웃을 위한 명상의 시간으로 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3%의 힘은 얼마나 될 것인가? 자신과 이웃을 위한 3%의 나눔은 누구를 이롭게 할 것인가? 물론 자신과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재가연대의 이 캠페인을 단순한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크게 얘기하면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정토건설의 발원일 것이다. 범위를 축소해 이야기 한다면, 자신의 생활 습관을 철저히 '나눔'에 흡착시킴으로써 날마다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기를 기르자는 발원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캠페인은 가장 불자다운 삶, 가장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자는 염원이 담긴 실천운동인 것이다.

이처럼 숭고한 염원을 자신만이 간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마지막으로 권장하고 있다. "3인에게 권유하자"고. 내 주변의 세 사람에게 이 캠페인을 전달하고 그들이 또 다른 세 명에게 확산한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토가 될 것이다. 해피타임 캠페인, 우리 함께 불국정토의 주인공이 되자는 외침이 온 누리에 메아리치길 기원한다.

이렇게 들었다 — 포옹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형제·부부·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내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이탈리아 북부 만토바 인근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남녀 유골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5000전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골들이 화제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자세 때문. '발다로의 연인'이라고 불리는 유골은 서로 마주 보고 꼭 껴안은 자세로 발굴됐다.

이 독특한 포옹 자세에 대해 남성이 사망하자 영혼의 동반자 역할을 위해 여성을 희생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뛰어넘는 불멸의 사랑에 무게중심을 두려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프리허그(free-hug) 운동이 상륙했다. 헌터씨가 어머니 죽음을 계기로 어머니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소망의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했다는 이 운동은, 말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포옹하는 것이다.

포옹문화가 익숙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딘가 생뚱맞아 보여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고.

나는 자문해본다.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포옹을 나눈 적 있는가".

제 몸보다는 남의 몸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그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출요경 염품〉

■ 남동우(취재부 기자)

새해 이것만은… — 군포교 활성화, 군법사가 '주체'다



군종교구의 출범으로 군불교에 대한 관심과 군불교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군포교 발전을 위한 만인동참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가고 있고 군포교의 성과물들을 담아내는 월간 <군불교>지도 창간되었다.

또한 교구장 스님의 지침처럼 군포교역량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조직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군종교구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 보다 더 발전적인 군포교를 위해서는 점검해야 할 일들이 많다.

첫째, 내부적인 포교역량 강화를 위해 주체인 군승의 자기 발전을 위한 수행이 점검되어야 하겠다. 일반 기업에서도 기업 발전을 위해 사원들에게 끊임없이 변화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 기업은 사원들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물적 투자를 아낌없이 제공해주고 사원들은 끊임없이 자기충전을 함으로써 회사에 기여 한다. 종교인이라고 다를 바 없다.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며 포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충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수행에서 나온다. 수행을 위한 동기부여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 수행이 다분히 개인적이기는 하나 공동의 힘에서 나오는 힘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외부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방법과 내용에 대한 성과와 분석 등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30여명이 움직이는 조직에 포교성과를 확인할 방법이 수계 인원이외에 없다는 사실은 조직의 힘과 역량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조직적이고 발전적인 포교를 위해서는 포교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철저한 내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자면, 포교는 주로 어떻게 하며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포교 지침이 만들어 지고 포교성과물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분석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포교성과물들이 남겨진 일은 거의 없다. 주먹구구식이며 구태의연한 이런 풍토는 올해 분명이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일 년에 한 권이라도 포교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포교자료집이라도 나온다면 그 의의는 클 것이다.

자기발전 위한 노력·포교성과 공유 등 정착돼야

셋째, 군포교에 대한 공통된 마인드를 군승들끼리 자주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동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힘과 발전은 기대된다. 양적 포교를 넘어서 질적 포교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그동안 없었다. 군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포교성과에 대한 객관적 반성을 토대로 장단기적인 포교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교구 출범 초기 상황에 많은 것들을 해내기란 어렵겠지만, 먼저 각 포교현장의 군승들이 일관성도 연계성도 없는 폐쇄적인 자기방식 형태의 포교를 지양해야 한다.

적극적인 포교 성과물들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군불교 발전을 위한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장병들의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이를 종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군포교연구실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김창모(육군종합행정학교 법사)

공 고

2006년11월30일 김대관(벽송)스님께서 제출하신 사임서는 2007년 2월1일 임시중앙종회에서 본인의 뜻을 받아들여 사임서를 수리하였고, 임시중앙종회에서 차기종정에 우종산스님을 선임하였음으로 향후 임시종정의 직함이나 직인은 일체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사 임 서

성명 : 김 대 관 (벽송)
직위 :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상기 본인은 2005년 12월 14일 서울지방법원(제50민사부 2006비합278호)으로부터 대한불교 원효종의 임시종정으로 선임되어 대한불교원효종의 중앙 종의회를 2006년 9월 29일 적법하게 구성하여 임시종정의 소임과 책임을 완수하였기에 본인은 대한불교 원효종의 임시종정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대한불교 원효종의 중앙 종의회에서 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종정을 추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11월30일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김 대 관
서울시 송파구 잠전동 5

대한불교 원효종 중앙 종의회의장 법하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중 앙 종 회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 보급 안내

◎ 法象道(법상도)는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총기 사억팔만사백전장경 목록을 당나라 현장법사와 함께 서천에 가서 모셔온 가장 길하고 상서로운 흰코끼리(백상:白象)의 法道(법도)를 나타낸 것이다.
◎ 이 백상(흰코끼리:白象)의 둘레에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을 써서 조성한 법상도(法象道)는 불자라면 누구나 필히 한품씩 집안에 소장할 필요가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성품(聖品)이며, 길상품(吉祥品)으로서 "서천불설 팔만대장경 목록과 함께한 법상도(法象道)는 한마디라도 영험이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라고 자은전 10권(慈恩傳10권)등의 자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 법상도(法象道)의 가장 큰 영험은 특히 고증자료에서 "중생들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가장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집안에 두면 장경 전부를 읽는 공덕을 얻고, 무량제 불이 호위하시며 세세생생에 수복무량하고 일체 재해가 스스로 소멸하며 살아서는 소원성취와 호신용으로 죽어서는 극락왕생 보장책으로 그 영험이 크게 있다"하였다.



佛寶法象道(불보법상도)액자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액자의 효험

– 불보법상도(佛寶法象道) 액자는 집안에 거는 날부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 재앙이나 재난을 미리 예방해 주는 효험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나 식구들의 건강이 염려되시면 불보법상도 (佛寶法象道)액자를 구하시어 집안에 걸도록 하십시오.
–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몸을 보호해 주고 예방해 줌은 물론, 어느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여 놀라는 일 등이 없을 것입니다.
– 이미 몹쓸병에 걸렸거나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하거나 호전시켜주는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팩스768-8413

⊙소재 : 팔 괘 – 고급 무늬목재
법상도 – 특수 금속판에 직접 조성,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기법처리
⊙규격 : 45cm × 45cm ⊙보급가 : 20만원

불교산업의 모든 것 한자리서 만난다

2007 한국불교박람회 준비 순조…참여업체 늘어

3월 22~25일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 각종 행사 풍성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2007한국불교박람회'에 불교관련 업체들이 대거 신청하는 등 대회전부터 열기가 뜨겁다. 한국불교 유무형의 컨텐츠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최대규모 불교전시회인 '2007한국불교박람회'는 2007년 3월 22~25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주)제이컨벤션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사찰건축 및 유지보수, 불교용품, 종단 및 단체, 전통차, 첨단포교, 불교장례문화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기타산업을 분야별로 전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눈여겨 볼 것은 우선 참가업체 범위가 대폭 늘어나 볼거리들이 충분해 졌다는 것이다.

사찰 건축의 경우 조경, 난방, 기화, 단청, 불화, 장식 등 전통예술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다. 또한 진각종, 총지종 등 종단과 관문사 조계사 등 대형 사찰들이 참여해 다양한 방법으로 종단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찰서 만든 먹거리 및 차 무료시음회장도 마련해 관람객들이 직접 즐길 수 있게 했다.

한국불교박람회는 불교계 사업체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불교사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까에 치중해 왔던 것. 품질보다 영업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공격적인 마케팅 시장이 구성되지 않아 주먹구구식 알음알이 판매가 주를 이뤘다.

장혁 사무국장은 "지난해 처음 개최한 불교박람회에는 5만여 관람객이 찾아오는 등 기대 이상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지난해 드러났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국장은 "포교는 물론 동종 업체간의 정보교류 역할도 병행해 건전한 불교문화산업 풍토를 조성하는데 이번 박람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불교박람회사무국측에 따르면 1차 마감에서 이미 1백여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중 능인화, 취운향당, 원주한지, 동양직물, 향적원, 조익공영주식회사, 코스모스환보, 성종사, 천종사, (주)위디안, (주)효월, 실크로드, 양지국악사, 삼환양초, 대한명인, 천태종 관문사, 진각종, 총지종, (사)로터스월드, 조계사 등 다수의 업체가 새롭게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업체들을 위해 사무국측은 2월 28일까지 제 2차 접수신청을 받는다. 2007한국불교박람회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bexpo.org)와 전화로 하면된다. (02)706-3493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007 한국불교박람회 눈길 끄는 참여업체

능인향당

전문성 깃든 용품과 향


능인향당의 향꽂이

능인향당은 문화예술 분야의 국악인, 조각가, 화가, 시인 도예가등 전문가들이 결성한 회사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참 공양의 의미를 되새긴 향을 연구 개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과 운영의 필요에 의해 만든 불상과 불교용품, 그리고 향을 제조 유통하는 불교용품 전문 브랜드다.

장기간의 불교성지 답사와 전문가에 의한 연구개발로 만들어진 능인향당의 향은 심신 안정과 방향 및 불교의식 등 다양한 쓰임에 적합하기 위해 자연 상태에 가까운 원향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밀폐된 공간이나 수면시 또는 기도와 공부 시에도 안전하게 피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선향의 성형에 꼭 필요한 접착제 또한 각고의 노력 끝에 오지에서 찾아낸 접착 향목을 사용해 원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했다. (02)3663-6777, www.nihwa.com

동양직물

승복지 자체개발 전국 유일

동양직물은 고품격 신사복지 뿐만이 아니라, 종교복지(승복지)를 자체 개발해 제일모직의 첨단기술로 생산, 판매하는 전국 유일의 업체이다.

동양직물은 몇십년간 불교 의복문화에 큰 기여를 해 왔으며, 승복지 사업에도 문을 넓혀 승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스님들의 의복 품격을 고급화 하는 데 한 몫을 해오고 있다.

승복지의 등록상표로는 'paramita(바라밀다)'가 있으며, 제일모직과 우성모직 제품을 모두겸비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우성모직의 특징은 생산공장이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직접 우수한 기술진을 바탕으로 직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복지는 모직, 면, 실크, 무명, 모시, 삼베, 누비 등 다양한 원료로 만들고 있다. (02)2267-1821, www.dongyangtextile.co.kr

향적원

토종 '장맛'의 자부심



'원료는 철저한 친환경 농산물, 제조방식은 전통방법, 화학조미료와 방부제 및 색소 등은 절대 사절'. 한국 전통의 맛을 3대째 지켜오고 있는 고추장 제조 기능보유자가 직접 손으로 만드는 향적원 전통식품(고추장, 된장, 청국장)은 갈수록 잃어가는 한국 전통의 맛을 그대로 재현시켜 의미가 크다. 제조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순창에서 제일 높은 해발 280m의 고냉지 채소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공조미료 및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제조기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철저한 장인정신의 노력으로 식품부분에서는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농림수산부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순창군에서 지정한 민속마을 전통고추장 품질검사에서도 군수 품질보증까지 획득해 명실공히 최고의 전통 장맛을 고객에게 선사하고 있다. (063)653-3997,www.shunchang.co.kr

조익공영주식회사

좋은 재질의 지붕 마감재


조익공영이 개발한 지붕마감재

'지붕 공사에 관한 한 최고의 품질을 추구한다.' 조익공영은 건물의 특징에 따라 가장 적합한 재질의 다양한 지붕 마감재를 전문적으로 판매시공하는 회사다. 현대 건축이 요구하는 미적 감각과 기능성 및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지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조익공영은 국내유수의 아파트, 골프장 클럽하우스, 일반주택, 공공건물, 기타 대형 건축물에 품질 높은 지붕재를 시공해 21세기 지붕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돌출이음 지붕재는 두 판이 돌출돼 서로 맞물리게 제작된 것으로 기와가락이음의 기능성과 평이음의 미관성을 고려해 세로선이 가늘고 강하게 나타나 시공 후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 준다. (02)473-2491, www.joik.co.kr

코스모스환보

'태양광 정원등' 인기 절정

요즘 태양열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점차 늘고 있다. 기름값이 치솟는 것도 한 원인이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태양열 제품은 전자계산기나 디지털 손목시계에만 쓰였다. 하지만 요즘은 정원등, 플래시, 내비게이션은 물론 체중계, 재떨이, 공기청정기 등도 태양열을 이용한 제품이 인기다. 태양열 정원등 등을 판매하는 코스모스환보에서 소비자의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태양열 제품은 '태양광 정원등'이다. 전원이 필요 없고, 낮에 충전된 태양에너지로 밤새도록 정원을 밝혀준다. 광센서가 달려있어 해가 지면 저절로 켜진다. 방수 기능도 갖춰져 있다. 운치가 있어 아파트 베란다의 실내 정원용으로 많이 팔린다. (032)347-0830, www.cosmoshuanbo.com

성종사

밀랍주조공법 독자적 기술


밀랍주조공법으로 만든 성종사 종

성종사 전매특허인 밀랍주조공법은 업계 유일의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인 원광식 대표가 10여년간 독자 연구끝에 재현해 낸 우리 전통주조기법이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한 이 주조기법은 완성된 범종 표면의 문양을 섬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도 우수한 최고의 범종제작 기법이다.

아울러 2005년에는 중기청 지원사업인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대형범종 제작에 적합한 새로운 밀랍주조공법 개발에 성공해 5m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도 제작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범종들은 국내는 물론 일본 싱가폴 대만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다. (02)733-6141,www.sungjongsa.co.kr

천종사

견고한 종 맑은소리 '자랑'

범종, 청동불상, 탱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조각, 옥촛대 등 다수의 불교 컨텐츠를 만드는 불교전문업체이다. 특히 법당종 10관에서부터 대규모 종까지 제작되는 범종은 청동과 주석을 합금해 주물을 부어 주조하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관에 달하는 제주 금붕사와 대구 보광사 종이 대표적이다. 20년 넘게 장인정신으로 일해온 송창일 대표의 피와 땀이 천종사의 제품들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031)761-3098,www.천종사.com

(주)위디안

유골·사리봉안함 '칠고옥'


유골 및 사리봉안함 '칠고옥'.

위디안의 대표상품인 유골 및 사리봉안함 '칠고옥'은 우연하게 개발됐다. 항상 옆에서 울고웃던 가족 친지의 유해가 더운 여름이 지나 부패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심요섭 대표가 썩지않는 유골함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심대표는 오랜 연구 끝에 위생적 응골문화의 결정체인 '칠고옥'을 개발하게 됐다.

'칠고옥'은 불교의 <법화경>에서 유래한 일곱가지 보석의 색체를 인용 화장하거나 부패한 유골까지도 초고온으로 완전 용해시켜 유골성분을 그대로 보존한 채 구슬 또는 각종 모양으로 탄생시킨 첨단기술의 결정체이다. 자연결로에 의한 부패와 손상 및 냄새의 우려가 전혀 없어 각 가정에서도 보관 가능하다. 또한 친환경적이며, 언제든 고인의 유골을 '칠고옥'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031)981-0271,www.칠고옥.com

양지국악사

전통의 소리 견고한 제품


양지국악사가 제작한 단청북

양지국악사는 1991년도에 종로에 처음 국악기 전문매장을 개업한 이래 2001년 경기도 하남 시에 국악기 제작소를 마련, 각종 북과 특수 악기를 직접 제작하고 있다.

또한 양지국악사에서 제작한 악기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악기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는 양악과 어울릴 수 있는 악기들을 다양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다. 제품으로는 장고를 비롯해 대고, 소고, 대금, 태평소, 꽹가리, 징 등 20여가지가 있다. (02)3673-3442, www.yangjikukak.com

불제대원기업

연등용 전선·청사초롱 '우수'

1989년 신심있는 불자들로 구성되어 불교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창업해 '불제 연등용 전선(사찰용)'과 건전지용초, 청사초롱, 사찰용 전구를 주력제품으로 오늘까지 꾸준한 제품개발로 생산에서 시공까지 하고 있는 불자기업체다. 특허청으로부터 화재예방 안전과 제품의 견고한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받은 제품을 전시한다. (02)2266-2634, www.bulje.co.kr

(주)효월

제주도 차 제조판매로 '인기'

경남 하동에서 질좋고 맛좋은 고급 야생차만을 취급하는 (주)효월은 3년전부터 제주도로 자리를 옮겨 녹차와 야생차, 화차, 떡차 등 수십종의 다양한 차를 만들어 직접 판매하고 있다. 또한 요즘에는 고급 원목을 사용해 찻상과 차도구 등을 만들어 외국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064)792-5646, www.hyoworl.com